

석사학위논문

이태준 단편소설의 인물 연구

지도교수 이 건 청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 전공

김 진 숙

2005년 2월

석사학위논문

이태준 단편소설의 인물 연구

지도교수 이 건 청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 전공

김 진 속

2005년 2월

이태준 단편소설의 인물 연구

지도교수 이 건 청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합니다.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 전공

김 진 숙

2005년 2월

이 논문을 김진숙의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인준함

* 심사위원장 (인)

* 심사위원 (인)

* 심사위원 (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2005년 2월

국 문 초 록

이태준 단편소설의 인물 연구

본 연구는 해방 이전 상허 이태준의 단편 소설을 대상으로 하여, 그의 소설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들을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삶의 인식과 문학적 의미를 고찰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기존의 연구 성과에 따르면, 이태준 소설의 인물은 '회의주의적이며 패배주의적인 인물'로서 사회성과 역사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검토해 본 결과, 이태준 소설에는 사회적, 역사적 현실에 대한 작가의 고민이 강렬하게 반영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먼저 예비적 고찰로써 상허의 생애와 문학활동을 살펴보았다. 그는 일제 식민지 시대라는 특별한 시대 환경과 고아라는 특수한 개인적 경험 속에서 성장하였으며, 그가 주로 활동하고 작품을 발표했던 때가 1930년대의 가혹한 검열 통제의 암흑기였음을 상기해 볼 때에 이러한 고찰은 유다른 의미가 있다고 본다.

본론에서는 이태준 단편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소외와 궁핍의 인간상, 갈등과 좌절의 지식인상, 질박한 인간상, 노년 인물의 현실수용, 현실 속의 여성상의 다섯 갈래로 나누어 유형화하였다. 소외와 궁핍의 인간상을 보여주는 작품에서 작가는 이러한 하층민의 비참한 삶을 통해 일제치하에서의 하층민의 뿌리뽑힌 삶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러한 원인이 이 사회의 모순에서 비롯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갈등과 좌절의 지식인상에서는 억압된 시대 상황에 갈등하고 좌절하는 지식인의 고뇌를 통해 작가의식이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자신을 대변하는 지식인을 등장시켜

자신의 삶과 문학 세계를 반성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자세를 보였으며, 미래에 다가올 시련을 예견하는 예리한 현실인식을 보여준다. 질박한 인간상에서는 어리석고 모자라지만 선량한 이들을 등장시켜 당대의 암울한 현실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노년 인물의 현실 수용에서는 적극적 인물의 경우 미래지향적이고 의지적인 노인들이 등장하여 식민지 시대 젊은 지식인들의 무기력을 비난하고 있으며, 순응적 인물의 경우에 속하는 노인들은 적극적인 삶의 의지나 경제적 능력을 갖추지 못한 힘없는 노인들의 소외와 외로움을 보여줌으로써 식민지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조명하고 있다. 현실속의 여성상에서는 화류·윤락여성의 경우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지 못한 빈민 여성들이 살아가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몸을 팔게 되는 비극적인 삶을 보여줌으로써 사회적인 부조리와 궁핍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다. 반면 여성의 자아인식을 보여주는 인물을 등장시켜 당대를 살아가는 여성과 지식인의 바른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이태준 단편 소설의 인물들을 분석해 본 결과, 작품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인물들은 이태준의 작가 의식과 당대의 시대 현실과의 다양한 관련성 하에서 형상화되고 있는 당대적 인물들로, 일제 식민지 시대 정신적인 좌절과 경제적인 곤궁을 체험하며 현실에 고통받는 인물들임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현실과의 관계가 화해롭지 못하거나 갈등하고 있는 인물들이며, 작가는 그런 인물들을 포용하지 못하는 상황의 비정함이나 암울함을 고발하고 있는 것임을 읽어낼 수 있었다.

목 차

<국문초록>

I. 서론	1
1. 연구 목적 및 대상	1
2. 연구사 검토	4
II. 생애와 문학활동	9
III. 인물의 특성	14
1. 소외와 궁핍의 인간상	14
2. 갈등과 좌절의 지식인상	22
3. 질박한 인간상	33
4. 노년 인물의 현실수용	37
5. 현실속의 여성상	51
IV. 결론	58
<참고문헌>	61
<영문초록>	64

I. 서론

1. 연구 목적 및 대상

본 논문은 우리의 현대 문학사에 있어 새로운 지평이 열리기 시작했던 1930년대의 대표적 작가인 이태준의 단편소설에 나타난 인물들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그 특성을 탐구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상허 이태준은 ‘순수문학의 기수’¹⁾이자 ‘단편소설의 완성자’²⁾로 평가된다. 그는 ‘사상이나 사조에 의거하지 않고 오직 순수문학의 길을 걸어온 대표적인 작가’³⁾로서 우리 문학사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겠다. 그러나, 종래의 문학사 기술을 보면 이 작가는 월북 문인이라는 이유로 문학사적 평가와 논의가 금기시되어 왔다.

다행스럽게도 1988년 7월 이후 이들 월북·납북 문인들에 대한 조심스런 해금 조치가 내려지면서 점차 당시 주요 문학인들에 대한 검토·논의가 활기를 띠고 있어 당대의 문학사가 새로이 인식되고, 보다 객관화되어질 것으로 믿는다. 또한 이들 월북 문인에 대한 문학사적 차원의 정리는 ‘해방 이전의 모든 문학사적 사실에 대한 개방적인 논의를 통해 월북 문인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이며, 월북 문인들이 지니고 있었던 이데올로기적 지향에 대한 문학사적 비판과 검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그 문학사적 위상을 바르게 정립할 수 있도록 할 것’⁴⁾으

1) 김우중, 『한국현대소설사』, 선명문화사, 1973.

2)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 홍성사, 1979.

3) 백철, 『신문학사조사』, 신구문화사, 1986.

4) 권영민, 「월북문인을 어떻게 볼 것인가」, 『월북문인연구』, 문학사상사, 1989. p.40.

로 믿는다.

상허는 1925년 시대일보에 『오몽녀』를 발표하여 문단에 오른 이래 우수한 작품들을 다양하게 발표함으로써 한국 현대 문학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그가 본격적이고도 왕성한 작품 활동을 했던 1930년대는 일제의 군국주의로 많은 변화가 일어난 시기이다. 사회적으로는 전국토의 병참기지화와 전민족의 피폐 궁핍화가 이루어지고, 문학사적으로는 카프의 해산과 함께 문학 전반에 걸친 탄압으로 탈이데올로기적 모습을 갖게 된다. 1920년대의 시대 상황이나 문단의 흐름에 크게 흔들리지 않으면서 일상 생활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서정적으로 형상화하던 이태준은 그의 문학적 기질과 걸맞는 1930년대의 문학 풍토를 만나 ‘구인회’를 결성하는 등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한다. 그는 <文章>지 편집에 관여하면서 많은 신인들을 문단에 배출시키는 등 당대의 뚜렷한 중심 인물로 부각되었고, 혼란스런 시대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 근대 소설의 한 방향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학계 연구 성과를 토대로 1925년부터 해방 이전까지 그가 발표한 작품을 정리해 보면 단편소설 45편, 중편소설 3편, 장편소설 13편, 콩트 7편, 소년물 10편, 희곡 3편, 그 밖에 다수의 수필 및 잡문 등으로 집계된다.⁵⁾

본 논문에서는 월북 후 이태준의 문학 활동과 그 족적을 알아볼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제약점을 감안하여 연구 대상과 범위를 해방 전 단편소설로 한정하고자 한다. 상허의 문학을 대표하는 장르가 바로 단편 소설이고, 상허 자신도 단편에 대해서는 각별한 애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⁶⁾ 단편에 대한 상허의 각별한 애착은 단편 소설만이

5) 민충환, 『이태준연구』, 깊은샘, 1988. p.58.

6) 그는 단편집 《가마귀》 서문에서 “그간 長篇도 몇 쓴 것이 있다. 그러나 나는 아직은 이 적은 作品들에게 더 愛情을 느낀다. 짜날리슴과의 妥協이 없이, 比較的

예술의 본질에 접근하고 있다는 그의 인식을 나타내 주는 것이며, 따라서 상허 문학의 본질이 단편 소설에 내재되어 있음을 시사해 준다고도 볼 수 있다. 이것이 이 글에서 그의 단편 소설을 연구 범위로 한정하는데 대한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작가는 자신의 인생관과 보편적 삶의 리얼리티를 ‘인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창출해 낸다. 작품 속의 인물은 잘 짜여진 작품의 명확한 주제의 전달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소설의 구성요소 중에서도 특히 인물을 가장 강조한 바 있다. 《무서록》에서, 그는 인물의 묘사를 중시하는 뜻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①소설은 사건보다 먼저 인물에 있다. 사건이란 인물에 소유되는 것이기 때문이다.⁸⁾

②소설은 인물의 발견이다. 발견이 되 어디까지나 자기류의 발견이다.⁹⁾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이태준 소설의 등장 인물들을 유형별로 검토하고 그 특성을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

純粹한 나대로 쓴 것이 이 단편들이기 때문이다. 내가 쓰고 싶은 것을, 내가 쓰고 싶은 때에, 내가 쓰고 싶은 투로 쓰는 것이 나의 생활에서 가장 질겁고, 가장 安全하고, 가장 神聖하기도 한 일이었다. 그래 내 生活에 다소 價値가 있었다면 그 價値의 貨幣가 곧 이 短篇들이라 해 마땅할 것이다.”라고 했으며, 수필집 《무서록》을 보면, “작가들의 職業이 아니라 作家들의 藝術을 보려면 아직은 短篇을 떠나 求할 데가 없다. 그만치 現在 朝鮮에서도 短篇은 모든 作家들의 藝術을 代表하고 따라서 朝鮮文學을 代表하는 者라 하여도 過言이 아닌 程度다.”라고 쓰고 있다.

7) 정한숙, 『현대 한국 소설론』, 고려대학교출판부, 1982. p.113.

8) 이태준, 『무서록』, p.71.

9) 이태준, 『무서록』, p.73.

2. 연구사 검토

상허의 문학에 대한 지금까지의 관심과 논의들을 살펴보면 시기에 따라 다음 셋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상허가 작품 활동을 활발하게 하던 1930년대의 논의들이 있다. 이 시기는 최재서, 백철 등에 의해 이태준론의 기틀이 잡혀졌다. 둘째, 월북 후부터 60년대를 거쳐 80년대 초까지의 논의들로, 월북 이후의 행적에 관계된 논의와 해방 이전의 작품에 대한 소설사적인 논의가 있다. 셋째, 80년대 후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논의들로, 논문과 평문이 이 시기에는 양적으로 증가를 보이며 이태준 문학에 나타난 부정적인 견해가 수정되어 이전의 연구를 극복하려는 입장의 논의들이 나오고 있다.

먼저 상허가 작품 활동을 활발하게 하던 1930년대의 논의들을 살펴보면, 이 시기는 주로 단순한 감상문이나 인상 비평에 치우쳤으나, 본격적인 이태준론은 최재서¹⁰⁾에 의해서 처음으로 쓰여졌다. 그는 이태준 문학의 특징은 “선명한 인간상”의 묘사에 있으며 “유모아와 페이소스”가 있기 때문에 더욱 매력을 준다고 하여 작품내적 분석에 근거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단편소설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의 유형, 인물들의 유모아와 현실과의 괴리를 지적하였고, 인물의 특성을 “낙향한 유지, 퇴기, 농민, 신문배달부, 노인 등 인생의 그늘에서 움직이는 희미한 존재들의 고독과 애수가 동정과 유모아로 그려진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작품에 “사상적 고뇌가 없으며, 시대적 거리를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최재서의 논의는 상허 단편소설에 대하여 비교적 바르게 분석하고 있어, 이후 상허 문학을 이해하는 하나의 틀로 굳어졌으며

10) 최재서, 「최근문단의 동향 - 단편작가로서 이태준」, 『문학과지성』, 인문사, 1938.

상허 연구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백철¹¹⁾은 상허를 한국 단편소설사상에 있어서 김동인, 현진건의 뒤를 이어 누구보다도 뚜렷한 공적을 남긴 작가라고 하였다. 그리고 상허문학의 단점으로 사상의 결여를 지적하였고 그의 작가적 기질을 “센티멘탈리즘”으로 파악하고 그것을 다시 “소녀적인 감상성”과 “한국적인 애수”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상허문학이 전성기를 이루던 시절(연구사의 첫 번째 시기)의 이태준론은 주로 최재서, 백철 등에 의해 논의가 펼쳐지고 있는데, 상허 문학의 장점으로 묘사의 탁월함을 지적하는 한편, 사상이 결여되어 있고 역사 의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단점으로 지적하였다.

두 번째 시기인 월북 후부터 80년대 초까지의 논의들을 살펴보면, 그의 월북 사실이 논의 전개에 직접, 간접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45년 해방 후 이태준은 정치적 변신을 보여 좌익문화단체인 조선문학가동맹의 부위원장으로 활약하다가 이듬해인 1946년 좌익계열의 문인들과 함께 월북함으로써 이후 남한 문학사에서는 거의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

방준원¹²⁾은 그의 문학을 패배의 문학으로 규정하여 “적극적으로 일제에 협력하지 않았지만, 소극적으로라도 타협한 이상, 지사연하는 양을 보아줄 일이 아니며, 심각한 인생 고민이나 사상적 시련을 찾아 볼 수 없다.”고 하여 그의 문학과 그의 행동을 비판적으로 평가하였다. 황중엽¹³⁾, 김종빈¹⁴⁾ 역시 이태준의 월북을 문제삼아 부정적인 비판을 가하였고, 반면 김동석¹⁵⁾, 최태웅¹⁶⁾은 호의적인 자세를 보였다.

11) 백철, 『신문학사조사』, 신구문화사, 1968.

12) 방준원, 「이태준론」, 『白民』, 1946. 10.

13) 황중엽, 『詩作과 眞實』, 眞誠堂, 1948. 10.

14) 김종빈, 「묘혈을 자청한 이태준」, 『동아춘추』, 1963. 4.

15) 김동석, 「예술과 생활 - 이태준의 문장」, 『예술과 생활』, 1948.

김우중¹⁷⁾은 상허 문학의 특징을 ‘패배적 인간형, 역사부재와 사상빈곤, 순수 의 기수’ 등으로 정리하면서 상허는 지나치게 감상주의적이고 패배주의적 이라고 비판하였다. 또한 상허 작품에서 역사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사상이 빈곤한 것을 순수문학의 한계성과 결부시켜 지적하였다. 김현¹⁸⁾은 상허가 구시대의 봉건적인 풍속과 일제 수탈 정책의 과중한 어려움을 감당해 내야만 하는 폐쇄사회 속에서 아무런 의지도 없는 패배주의적 인물을 그린 무기력한 작가이고, 그의 기질은 ‘딜레탕티즘’이라 단정하면서, 상허 작품에 두드러지게 등장하고 있는 패배주의적 인간상이 이 딜레탕티즘의 소산이라 하였다. 그리고 상허의 작품은 식민지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며 그의 문장은 지나치게 감상주의적이라 비판하였다.

반면, 이재선¹⁹⁾은 이태준을 근대적인 단편소설의 완성자로 평가하면서, 문학 세계의 정신적 기반을 상고주의와 연민의 정조, 반도시성과 흠에의 예찬이라 하여 긍정적 평가를 하였다. 정한숙²⁰⁾ 역시 이태준 소설의 문장과 인물 형상화의 탁월성을 지적하여 이태준을 1930년대에 들어 현대소설을 확립하는 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작가로 규정하였다.

이상에서처럼 상허 문학에 관한 소설사적 논의는 긍정과 부정의 두 측면으로 나누어진다. 김우중, 김현 등은 상허 소설이 현실인식과 민족의식 즉 사상성이 결여되었다는 입장에서 부정적 평가를 내렸고, 이재선, 정한숙의 경우는 문학적 기교가 뛰어나다고 하여 기법적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두 번째 시기의 이태준론은 매우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 이렇듯 부정적인 견해가 주종을 이

16) 최태웅, 「이태준의 비극」, 『사상계』, 1963.

17) 김우중, 『한국현대소설사』, 선명문화사, 1973.

18) 김윤식·김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1973. p.199.

19)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 흥성사, 1979.

20) 정한숙, 『현대한국문학사』, 고려대학교출판부, 1986.

루었던 것은 당대의 정치적 상황, 다시 말해 우편향적 이데올로기가 문단에
까지 침투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셋째, 80년대 후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논의들이 있는데, 이태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1988년 월북 작가들에
대한 해금조치가 내려짐으로써 그 후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
다. 이태준의 문학 연구는 민충환²¹⁾의 원전 비평적 작업에 의해 연구의 기
초가 이루어지고 최근 들어 논문과 평문이 다수 나오고 있다.

이전의 논의들과 다르게 현실인식의 차원에서 처음으로 이태준의 소설을
논의한 박정규는 이태준의 현실인식은 날카로운 것이었으나 이 현실인식을
역사의 연장선상으로 확대하여 미래까지를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
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²²⁾

이익성은 이태준의 단편소설을 구조주의적인 방법론에 입각하여 작중 화
자와 성격화 등의 문제를 분석하여 이태준 단편소설의 특질을 묘사력, 분위기
기 창출, 선명한 인간상으로 정리하였다.²³⁾

강진호는 상허 단편소설을 실험과 모색(1925~1931), 궁핍한 시대의 서정
적 반응(1932~1938), 인식의 심화와 절망적 현실(1939~1943)의 세 시기로
나누어 현실인식의 형성 과정을 통시적 관점에서 살펴 기존의 부정적인 문
학사적 평가를 비판하였다.²⁴⁾

송인화는 상허의 단편소설에서 지속적으로 추구되는 주제의식을 중심으
로, 현실에서 소외된 인물들의 고통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서정적 경향의
작품들과 식민지 사회의 모순을 고발하는 사회성이 짙은 작품들로 나누어

21) 민충환, 『李泰俊研究』, 깊은샘, 1988.

22) 박정규, 「尙虛小說의 現實認識」, 『어문논집』, 고려대 국어국문학연구회,
1986. pp.67~82.

23) 이익성, 「尙虛短篇小說研究」, 서울대 대학원, 1987. 2.

24) 강진호, 「李泰俊研究」, 고려대 대학원, 1987. 7.

고찰하였다. 서정적 경향만으로 상허의 작품 세계를 규정하였던 기존 연구의 시각을 극복하고 민족적 주제의식을 드러내 보였다.²⁵⁾

이선미는 해방 전까지 작품에만 국한했던 종래의 연구 경향을 비판하였다. 그는 『해방전후』·『농토』·『첫전투』·『고향길』 등 이태준이 월북하여 발표한 작품에도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그 결과 해방후의 작품들은 새로이 제기된 북한문예이론의 틀을 지니면서도, 일면으로는 자신의 현실적 고민의 반영으로서 자기극복과정에 주목하여 문학사에서 다소 문제적인 면이 드러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²⁶⁾

장영우는 지금까지 이태준이 성취한 문학적 성과를 시기별 특성 및 지식인의 관점을 중심으로 살피고, 이태준의 단편소설 뿐만 아니라 대표적 장편소설도 연구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논의의 폭을 넓혔다. 이태준의 단편소설은 강한 현실인식과 리얼리즘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상고주의와 민족주의 정신이 작품의 근간을 이룬다고 보았다.²⁷⁾

이남호는 이태준이 패배적인 인물의 창조를 통해 식민지 지배의 야만성과 허위성 그리고 부당성을 드러내려 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그의 소설에 대한 이해는 시대의식의 소설적 수용 방식에 대한 안목과 아울러 당시의 가혹한 시대적 억압 그리고 또 30년대의 문학적 상황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뛰어난 기법은 보여주나 사회 역사적 현실을 외면한다’는 종래의 통설을 부정하여 새로운 해석의 길을 터 놓았다.²⁸⁾

조동일은 이태준 소설을 서정적 소설의 범주에 넣어 이태준 소설이 자기의 의식이나 상상을 우회적인 방법으로 투영시켰으며, 하층민의 고난을 심

25) 송인화, 「상허 이태준 단편소설 연구」, 연세대 대학원, 1990. 6.

26) 이선미, 「이태준 소설연구」, 연세대 대학원, 1990. 12.

27) 장영우, 『이태준 소설연구』, 태학사, 1996.

28) 이남호, 「李泰俊短篇小說研究」, 『한국어문논집』,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학회, 1988. 8. pp.20~30.

각하게 다룬 것들도 있어 성격이 단순하지 않다고 하였다.²⁹⁾

이상에서 살펴 본 세 번째 시기의 이태준론은 기왕의 평가에 대한 반론적 성격이 강하다는 특징을 드러낸다. 그동안 이태준의 문학에는 민족의식과 현실인식이 없다는 종래의 부정적인 견해가 수정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까지 도외시했던 희곡·장편소설 및 해방 후 작품을 거론하여 논의의 폭과 질을 한층 높여 주었다.

이 글에서는 기존의 평가와 논의를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이태준 소설의 “인물”을 분석함으로써, 그런 특징적인 인물 형상화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작가의 당대 현실에 대한 인식은 무엇이었는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생애와 문학활동³⁰⁾

상허 이태준은 1904년 11월 4일 강원도 철원군 묘장면 산명리에서 부친 이창하와 모친 순흥 안씨 사이의 1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의 부친은 구한말 덕원 감리서 주사로 봉직한 관리 출신이면서 개화당에도 관계하였던 지식계층에 속한다. 작가의 자전적 소설로 분류할 수 있는 『사상의 월야』 같은 작품에는 부친에 대한 기록이 자주 언급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상허의 부친은 개화당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일본으로 쫓겨 갔다가 몰래 고향에 돌아오지만 조선 관리들의 등쌀을 이겨내지 못해 가족을 이끌고 해삼위(海蔘威, 블라디보스톡)로 떠난다. 그곳에서 상허 부친은 1909년 8월 28일,

29)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5권』, 지식산업사, 1989.

30) 상허의 성장과정과 그의 행적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민충환의 글과 상허의 자전적 소설 『사상의 월야』를 참고로 한다

35세를 일기로 이국땅에서 타계한다. 1912년 그의 어머니마저 죽게 되어 그들 세 남매는 졸지에 고아가 되고 만다. 고아가 된 이들 3남매는 고향인 철원 용담의 친척집에 맡겨지지만 부모가 없는 고향은 결코 안식을 주는 장소가 되지 못했고, 더욱이 어른들의 동정에 대해서 큰 창피를 느끼고 있던 어린 상허는 또 상당히 반항적이기도 했던 것 같다.

1921년 4월 휘문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한 뒤로는 책장사 등으로 학비를 조달하느라 늘 월사금 채납자의 명단에 끼었으나, 그의 성적은 비교적 우수한 편에 속한다. 그 후 그의 딱한 처지를 뒤늦게 알게 된 교장선생의 배려로 교장실 청소를 전담하고 학비 면제의 혜택을 받는다. 이로 인해 시간적 여유를 얻게 된 상허는 투르게네프의 『전야』,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톨스토이의 『부활』 그리고 위고의 번안 소설인 『아 아 무정』 등의 문학작품을 탐독한다. 이같은 그의 활발한 독서활동과 휘문고보 학적부의 기록내용 - 1학년때 ‘기호 및 지망’이 ‘문학’으로 명시되어 있음. - 과 특히 교지 《휘문》 제2호 발간시는 학예부장으로 활약하였다³¹⁾는 제사실을 종합해 볼 때 그는 이때 이미 문학가가 될 것을 마음 속에 굳게 다짐하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상허의 휘문고보 시절은 그렇게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또 한차례 좌절의 벽에 부딪치게 되는데, 그것은 학교의 비리와 교주의 횡포에 대항해서 일어난 동맹휴교사건에 그가 깊이 관여하는 데서 비롯된다. 어떤 계기로 그가 이 사건에 주모자로 연루되었는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고아라는 특수한 신분에서 연유된 사회의 냉대와 푸대접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내재하고 있었으며, 여기에 문학적인 열정과 결백성을 소지한 젊은이의 가슴에 반항심이 도화되었던 것으로 믿어진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1924년 6월 13일 동맹휴교에 주모자로 인정되어

31) 휘문중고등학교, 『휘문칠십년사』, 1976. 5, p.193.

5년제 과정중 4학년 1학기에 학교를 쫓겨난다.

1925년 친구의 도움으로 일본 유학의 길을 떠난 상허는 그곳에서 그의 문단 데뷔 작품인 『오몽녀』를 집필하여 투고, 동년 7월 《조선문단》에 입선하였는데, 무슨 연유에서인지 그 잡지에 실리지 않고 《시대일보》(1925. 7.13)에 발표된다. 이어 1927년 4월 동경 상지대에 입학하였으나, 그의 동경 생활은 한마디로 가난과 병고, 그리고 고독감으로 매우 불우했으며, 결국 중도에서 학업을 포기한 채 귀국길에 오른다. 서울로 돌아온 그는 여러 신문사와 모교인 휘문고보에 취직을 의뢰했지만 냉담한 반응만 보였을 뿐 어느 누구 하나 반겨주는 사람이 없었다. 일본 유학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모국에서 마음껏 펼쳐 보리라 기대했던 상허로서는 심한 좌절이 아닐 수 없었다.³²⁾

그가 왕성하게 작품활동을 했던 1930년대에서 해방 전까지의 한국 문단은 여러 가지의 다양한 색채와 음성이 뒤섞인, 主潮를 잡을 수 없는 시기였다. 1930년대의 식민지 문학은 일본의 계속되는 검열제도 때문에 상당 부분이 삭제되거나 伏字로 은폐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 시대의 작가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리고 때로는 그 한도를 넘어서서 자신들이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을 탁월하게 표현하였다. 이러한 암담한 정세 속에서 집단적인 형식으로서 예술과가 표현된 것은 1933년 8월에 구성된 소위 ‘九人會’의 등장이었다. 상허는 ‘九人會’의 중심 작가인 동시에 경향 문학의 퇴조 이후에 화려하게 무대 위에 등장했으며, 그리하여 그의 존재는 차츰 커졌던 것이다. 이 시기에 상허는 어느 정도 생활의 안정을 얻고 활발한 창작 활동을 전개하여 훗날 그의 대표작으로 평가되는 『달밤』, 『가마귀』, 『복덕방』 등의 단편과 『久遠의 女像』, 『法은 그러치만』, 『第二

32) 일본에서 귀국, 그리고 귀국 후의 방황하는 모습은 상허의 단편소설 『고향』에 잘 나타나 있다

의 運命』 등의 장편 등 많은 수의 작품을 발표하였다.

이후 객관적인 사정이 점차 어려워지고, 주위의 평자들로부터 그의 소설에 사회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게 되면서 1938년에는 자신의 작품 세계에 대하여 심한 갈등을 보이고, 새로운 문학적 변신을 도모하여 『農軍』과 같은 현실 인식이 투철한 적극적인 작품을 쓰기도 하지만 가중되는 시대적 압력으로 말미암아 이 노력은 더 큰 결실을 맺지 못한다. 그는 <이 시대의 내 문학 - 참다운 예술가 노릇 이제부터 시작할 결심이다>라는 글을 통하여 이러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나의 作品에 哀愁는 잇고 思想이 엷다는 것은 가장 쉽고 또 正確한 指摘들이다. 그러나 이 作家는 이런 範圍內에서만 完成할 수 잇다는 것은 速斷이다.……(중략)……나도 더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엷다. 이런대로 「인제부터는!」 할 수박게 엷다. 一年에 短篇하나를 내더라도 정말 藝術家노릇을 始作해야겠다는 決心을 이번 半七十이란 나이를 헤이며 새삼스럽게 먹은 것이다.³³⁾

‘이 作家는 이런 範圍內에서만 完成할 수 잇다는 것은 速斷이다’ 라고 스스로 표현한 것은 자기 반성인 동시에 앞으로의 각오라 할 수 있다. 그는 작품 속에 사상이 들어 있어야만이 진정한 예술가 노릇을 하는 것이라 인식한 것이다. 그의 이러한 강박 관념은 언어만을 지켜야 한다는 신념으로 굳어졌고, 해방후에 그가 조선문학건설본부에 참여하게 되는 직접적 원인이 된다. 그래서 그는 일제 시대에 언어만을 지켰다는 신념에 대단한 자부심을 가졌고 해방후 작가적 변신을 꾀했던 것이다.³⁴⁾ 상허는 지금까지의 그의 문

33) 이태준, 「이時代의 내文學 - 참다운 藝術家노릇 이제부터 始作할 決心이다」, 『조선일보』, 1938. 3.

34) 이명희, 『상허 이태준 문학세계』, 국학자료원, 1994.

학적 태도와는 달리 좌익 계열의 문학 단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해방전후』(1946)를 발표하면서 일대 사상적 전환을 보였으며, 임화에 앞서 벽초와 함께 1946년에 월북하였다.

이상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상허의 집안 분위기는 민족주의적이었다는 점이다. 상허의 부친은 기울어져가는 나라를 개혁하려는 강한 의지를 지녔던 사람이다. 어린 상허는 그의 아버지를 한말지사라 하고, 자전 소설인 『사상의 월야』에서 아버지의 뜻을 잇겠다고 다짐하는 등 이에 공감하고 자부심을 지녔던 듯하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상허는 막연하게나마 민족주의적 성향을 지니게 되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둘째로, 상허의 가정은 경제적인 고통으로 불안정하긴 했지만 유교적 기품을 지닌 집안이었다는 점이다. 상허의 집안은 철원에서 상당한 세도가였으며, 부모 모두 유교적 기품을 지닌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상허도 이런 가정적 환경의 영향을 받았으리라 짐작된다. 휘문고보의 학적부에 상허는 종교를 ‘유교’로 쓰고 있는데, 이것도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유교적 환경에서 상허는 천자문을 비롯한 한시를 배우는데, 이것은 상허의 인생관과 문학관을 형성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한다.

셋째, 상허에게 있어서 문학이라고 하는 예술은 체질화된 본능에 가까운 것이었으며, 이것이야말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태준이 그의 문학을 이끌어내간 원동력 구실을 하였다는 것이다.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책을 가까이 했고, 책을 통하여 받은 문학적 충격을 여러 곳에서 재음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태준의 문학적 체험과 감격은 바로 그가 문학인의 길을 걷게 된 이유가 된다.

넷째, 그의 고아 체험에서 싹튼 강한 자존심과 반항적 성격이다. 바로 이

것이 기반이 되어 그의 사회의식을 형성한다. 이런 성격과 의식은 그의 어린 시절을 통해서 인지할 수 있는 사항들이다. 남에게서 받는 동정에 상당한 자존심을 내세웠고 여기서 싹튼 반항적 성격은 휘문고보의 동맹휴교사건의 주모자 역할을 함으로써 구체성을 띤다. 이 사건은 그의 생애에 중요한 분기점을 마련하는데, 이것은 그의 정신세계가 사회적으로 표출된 한 예증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문학적 변신과 월북을 예고하는 단서와 같은 구실을 한다. 그러므로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의식과 예술성’이라는 양면성과 상반성이 바로 이태준의 모습이었고, 이런 상반성 사이에서의 고민과 갈등이 바로 그의 문학을 형성하였으며 동시에 그의 문학세계의 한 단면을 이룬다.³⁵⁾

Ⅲ. 인물의 특성

1. 소외와 궁핍의 인간상

1930년대는 점차 격변하는 시기였다. 가난한 계층은 더 확산되고 이들의 삶은 소외의 구조적 요소에 기인하게 되었다. 사회적으로 식민지 체제가 더욱 강화되면서, 경제적으로는 궁핍화 현상이 더욱 심해졌다. 세계 대공황의 여파와 일본 독점 자본주의가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전시 경제체제로 굳혀갔다. 이러한 실정에서 한국의 농산물 가격은 폭락하고 농가 수입이 격감되어 농민들의 생활은 한층 궁핍해졌다. 이렇게 되자 경지는 소수 지주에 집중되어 자작농은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일부 농민은 견디기 어려워

35) 이명희, 『상허 이태준 문학세계』, 국학자료원, 1994.

농토를 팔아 버리고 공장이나 광산으로 가서 임금 노동자로 전락하였고, 또는 도시의 품팔이 노동자로 나섰다. 또한 만주와 일본 등 해외로 유랑하거나 화전민 등으로 전락하여 ‘농민분해’ 현상이 발생하였다.³⁶⁾ 이러한 결과로 나타난 도시 집중화 현상은 도시에 실업자와 세궁민을 증가시켰고, 사회의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하층민의 삶은 더더욱 황폐해져 갔다. 이태준은 이런 당시의 시대 상황 속에서 자본주의 물결에 소외되고 식민지의 모순에 비참하게 살아가는 하층민의 절박한 삶을 소재로 한 작품들을 많이 다루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밤길』, 『꽃나무는 심어놓고』, 『봄』, 『촌뜨기』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런 작품들 속에서 소외와 궁핍의 인간상을 만날 수 있다.

『밤길』은 그의 대표작이라 할만한 작품으로 이 시대 한민족의 절망적인 삶을 상징적으로 그리고 있으며, 또한 리얼한 수법으로 성격창조에 성공한 작품이다. 아내와 딸 둘을 데리고 행랑살이를 하던 황서방은 첫아들이 태어나자 신이 나서 열심히 살아볼 생각으로 처자식을 주인택에 맡겨두고 인천 월미도로 내려가 막노동을 한다. 그러나 장마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어 그동안 벌어들인 것을 모두 까먹고 근근이 살아간다. 그런 그에게 아내가 달아났 다며 다 죽어가는 아들과 어린 딸들을 데리고 주인이 찾아와 호통을 치고 간다. 황서방은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만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온다. 주인이 들어오기도 전에 시체를 내갈 수 없다는 생각에 아직 숨이 붙어 있는 아이를 안고 어두운 빛속으로 나온다. 동료인 권서방과 함께 아이가 빨리 죽기를 기다리지만 아이는 금방 죽을 것 같으면서도 쉬 숨이 끊어지지 않는다. 어떻게든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황서방과 권서방은 어서 아이의 목숨이 끊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병든 아들을

36) 金泳謨의 공저, 『일제하의 민족 생활사』, 「일제하의 사회계급의 형성과 변동에 관한 연구」, 현음사, 1982. p.418.

생매장할 수밖에 없는 하층 노동자의 비참한 현실이, 몰아치는 세찬 바람과
칠흙 같은 어둠으로 상징되어 일제 말기의 절망적 시대 상황이 강하게 형상
화되고 있다.

황서방은 아이 무덤 쪽에서 돌아서기는 했으나 권서방과는 반대 방향으
로 걸어가는 것이다. 권서방이 쫓아와 붙든다.

“내 이년을 그예 찾아 한 구렁이에 처박구 말 테여”

“허! 이립 뭘 허나?”

“으흐흐…… 이리구 삶 뭘허는 게여? 목석만두 못한 애비지 뭐여? 저것
원술 누가 갠어…… 이년을, 내 젓통일 썩뚝 찢러다 물어줄 테다.”

“황서방 진정해요”

“놓으래두……”

“아, 딸년들은 또 어떻게 되라구?”

“…………?”

황서방은 그만 길 가운데 칠벽 주저앉아 버린다.

하늘은 그저 먹장이요, 빗소리속에 개구리와 맹꽁이 소리뿐이다.³⁷⁾

이것은 개구리 맹꽁이 소리 뿐인 밤길에서 갓난 아기를 묻고 돌아오는 황
서방의 북받치는 슬픔과 달아난 아내에 대한 증오에 가득찬 광경이 묘사된
이 작품의 마지막 부분이다. 황서방의 이러한 분노는 일견 아내에 대한 원
망으로만 보일지 모르나, 그것은 단순히 아내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
는 것은 아니다. 아내가 자식을 버리고 달아나게 한 상황과, 그러한 상황에
무력할 수 밖에 없는 아버지로서의 자신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다. 그리고
그것은 마지막 문장에서 암시하듯이 ‘먹장’과도 같은 당대 현실에 대한 분노

37) 이태준, 『돌다리』, 「밤길」, 깊은샘, p.170.

이기도 하다. 비록 절규를 통해 증오의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황서방의 슬픔은 바로 이어지는 분위기에 의해 더욱 고조된다. 먹장, 빗소리, 개구리와 땀방울 소리는 황서방이 당하는 슬픔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 그러기에 착하기만 한 황서방의 슬픔은 더욱 비참한 것이 된다. 계속되는 밤 - 어둠 - 비 - 바람에 이어 평온하기만 한 개구리와 땀방울 소리는 바로 황서방의 슬픔을 더욱 슬프게 만드는 장치인 것이다.³⁸⁾ 작가는 『밤길』을 통해 칠혹같은 어둠으로 상징되는 일제 말기의 절망적 시대 상황과 그 속에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던 하층민의 비애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뒤늦게 본 아들이 황서방에게 새로운 삶의 의욕을 가져다 주었던 원동력이었다면 결국 아들의 애처로운 죽음은 그에게 더 쓰라린 고통을 안겨 주었던 것이다.³⁹⁾

하층민의 경제적, 정신적 몰락을 실감나게 그리고 있는 작품으로 『꽃나무는 심어놓고』를 들 수 있다. 이 작품은 농민을 기만하는 식민지 농업 정책과 일인 지주의 횡포를 고발하고 있는 비교적 강한 사회 의식을 지닌 작품이다. 남의 땅을 붙이며 남부럽지 않게 살던 방서방이 지주가 일본인 회사로 바뀌자 무거운 소작료와 세금에 견디지 못하고 도시의 하층민으로 전락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아무튼 김의관네가 안성인가 어디로 떠나가고, 지주가 일본 사람의 회사로 갈린 다음부터는 제 땅마지기나 따로 가진 사람 전에는 배겨나기가 어려웠다. 텃세가 몇 갑절이나 올라가고 눈에는 금비를 썩라 하고, 그것을 대어 주고는 가을에 비싼 이자를 쳐서 벼는 헐값으로 따져가고, 무슨 세납

38) 이병렬, 「이태준소설의 인물 성격화 유형」, 『이태준 문학연구』, 깊은샘, 1993. p.270.

39) 장영우, 『이태준 소설 연구』, 태학사, 1996. p.164.

무슨 요금하고, 이름도 모르던 것을 다 물리어 나중에 따지고 보면 농사진 품값은커녕 도리어 빚을 지게 되었다. 그들이 지는 빚은 달리 도리가 없었다. 소가 있으면 소를 팔고 집이 있으면 집을 팔아 갚는 것밖에. 그래서 한 집 떠나고 두 집 떠나고 하는 것이 삼년 안에 오륙 호가 떠난 것이었다.

군청에서는 이것을 매우 걱정하였다. 전에는 모범촌으로 치던 동리가 폐동이 될 징조를 보이는 것은 군으로서 마땅히 대책을 세워야 될 일이었다. 그래서 지난 봄에는 군으로부터 이 동리에 사꾸라 나무 이백여 주가 나왔다. 집집마다 두 나무씩 노나 주고 길에도 심고 언덕에도 심어 주었다. 그래서 그 사꾸라 나무들이 꽃이 구름처럼 피면 무지한 이 동리 사람들이라도 자기 동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져서 함부로 타관으로 떠나가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것이다.⁴⁰⁾

이러한 농민의 몰락 과정은 바로 당대의 식민지 농업 정책에 맥이 닿아 있다. 무거운 세납과 지대로 자작농이 소작농이 되고, 소작농이 이농민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일제의 농업 정책으로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 마을을 떠나자 마을은 점점 황폐해지고 떠나는 사람이 늘어가자, 군청에서는 사꾸라 나무를 나누어 주어 농민을 기만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농민들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고, 농민들은 하나 둘 정들었던 고향을 떠나게 된다. 그래서 서울에 올라온 방서방네도 얼마 지나지 않아 돈이 떨어지고 또 일자리마저 구하지 못하는 신세가 된다. 거기다가 어린 자식까지 병이 들어 불덩어리처럼 열이 난다. 그러나 손 한 번 제대로 쓰지 못한다. 이것을 안타깝게 여긴 아내는 바가지를 들고 구걸을 나간다. 그런데 서울길을 잘 알지 못해 길을 잃게 되고 나쁜 노파의 계략에 빠져 술집에 팔려 가게 된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추위와 굶주림에 죽게 된다. 겨울이 지나고 봄

40) 이태준, 『달밤』, 「꽃나무는 심어 놓고」, 깊은샘, pp.215~216.

이 되자 막노동꾼으로 전신한 방서방은 돈을 만지게 된다. 그는 사꾸라 편고향의 추억을 떠올리고 향수에 젖어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술집에서 일하고 있는 아내를 만나게 된다. 방서방은 순간적으로 흥분하지만 자기와 자식을 버리고 달아난 아내에 대한 자격지심으로 아내를 외면한다. 서로 오해가 풀리지 않은 가운데 벌어진 극적 상황은 화사하게 피어 있는 꽃나무와 대조되어 감상적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그 길로 주막으로 간 방서방은 술을 곱배기로 들이키고 독백조의 녀두리를 늘어 놓는다.

세상은 슬프다면 온통 슬픈 것도 같고 즐겁다면 온통 즐거운 것 같기도 했다.

그러나 술만 깨면 역시 세상은 견딜 수 없이 슬픈 세상이었다.

“정칠놈의 세상 같으니!”

하고 아무데나 주저앉아 다리를 뺏고 울고 싶었다.⁴¹⁾

작가는 방서방의 전략과 비참한 삶을 통해 일제치하에서의 하층민의 뿌리 뽑힌 삶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러한 원인이 이 사회의 모순에서 비롯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빛 때문에 고향을 떠난 주인공이 병으로 아내를 잃고 자신과 어린 딸은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상황을 화창한 봄의 정경과 대비시키고 있는 『봄』이나, 몇 대째 화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장군이 삶터의 터전이었던 산이 삼정회사 소유로 넘어가 숲 굽는 일이나 화전을 못하게 되자 “살림을 떠났고” 대처로 나가는 과정을 회화적으로 그린 『춘떡기』도 『꽃나무는 심어 놓고』와 같은 계열에 속하는 작품들이다.

『봄』의 주인공 박은, 자본주의적 산업화가 보장해 주는 일정한 급여의

41) 이태준, 『달밤』, 『꽃나무는 심어 놓고』, 깊은샘, p.223.

월급장이 삶을 꿈꾸면서 아내와 딸을 이끌고 서울로 올라온다. 그러나 “서울은 박을 몹시 쓸쓸하게 하였다.” 고향땅을 팔아서 지니고 올라 왔던 천여원의 돈은 인쇄소에 다니기 전 삼년 동안 연기처럼 사라지고 그의 아내는 빈민촌에 전염된 장질부사에 의해 죽고 만다. 기대의 좌절과 가족의 파괴를 가져온 도시의 비정성은 ‘박’으로 하여금 심한 외로움을 느끼게 하고 삶의 의욕마저 잃게 한다. 어둡고 불결한 도시 빈민촌에서 영위되는 박의 일상선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던 고향에서의 삶과 대조되면서 동시에 공원에서 봄을 만끽하는 도시인들의 삶과 대조를 이루면서 더욱더 음울하게 부조되고 있다. 고향에서 아내와 함께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면서 즐겁게 노동하던 기억은, 생존을 위해 고통스럽고 무의미한 노동을 해나가는 도시의 삶을 더욱더 음울하게 양각화하는 기능을 한다.⁴²⁾ 아내가 죽던 해 열 살난 딸은 학교마저 그만두고 담배공장에 가서 돈을 벌게 되고 그것으로 둘은 연명해 나간다. 그 후 박은 인쇄소에 다니게 되고 야근비를 얻기 위해 자청해서 밤일까지 한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서 일을 해도 돈은 모이지 않고 몸만 더 고달플 뿐이었다. 삼 일 연이은 야근으로 지쳐 누운 박은 ‘밝고 따뜻한 날씨, 변화스러운 사람의 소리, 비먹은 훈훈한 흙냄새’에 이끌려 남산으로 향한다.

‘참, 세상은 아름답구나. 이렇게 좋은 봄날을 우리는 우리것으로 누리보지 못하는구나. 풀 한포기 없는 시멘트 바닥에서 운전기나 돌리구…… 어디 새 소리 한마디 들을 수가 있나, 원종일 오장육부가 뒤흔들리는 엔진 소리에 귀가 멍멍해 사는 것밖에…….’⁴³⁾

42) 변경해, 「이태준 소설의 인물 연구」, 서울대 대학원, 2001. p.36.

43) 이태준, 『달밤』, 「봄」, 깊은샘, p.157.

박은 갇히는 오지 않았지만, 이내 딸의 생각을 하고 풍선이라도 하나 사다 줄까 했으나 빈 주머니 속에서 주먹만 몇 번 쥐었다 폈다 하였을 뿐, 그냥 그 앞을 지나고 말았다. 그 대신 박은 아무도 없는 구석길로 내려오다가, 큰마음을 먹고 보기 좋게 핀 벚꽃 한 가지를 우지끈하고 꺾어서 얼른 두루마기 속에 넣었다. 맥주병이나마 딸의 그 쓸쓸한 화병을 장식해 주려 함이었다.

그러나 우지끈하는 소리는 몰래 꺾는 박의 귀에만 큰 소리가 아니었던지, 박이 다섯 걸음도 옮기기 전에,

“이놈아, 게 샀어.”

하는 거센 소리가 다우쳐 왔다. 피할 수 없는 봉변이었다. 봉변이라야 여러 사람 앞에서 산지기 손에 귀때기 몇 개를 맞은 것과 빼앗긴 꽃가지로 목덜미를 몇 번 맞은 것뿐이지만.

박은 다리가 후들후들하는 울분으로 남산을 어청어청 내려왔다.

오래간만에 일찍 들어서 보는 집이언만, 어둡고 씨늘하고 빈방은 일찍 오는 보람이 없었다.

“정칠…….”

박은 방에 들어서는 길로 무슨 분풀이나 하듯 딸이 신주처럼 위하는 꽃병을 발길로 차 던지었다.⁴⁴⁾

이렇듯 이 작품은 삶의 터전을 잃고 도시의 일용 노동자로 전락한 박의 절망적 비애와 사회의 병리적인 현상들, 즉 당시의 경제적 파탄과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인한 비인간화를 그려내고 있다. 작가가 이런 사회적 배경묘사 속에서 좌절의 늪으로 깊이 빠지는 인물을 동정적으로 묘사한 것은 결국 당시의 권력주체인 일제의 우회적 비난이며, 한편으로는 이 거대한 권력의 횡포 앞에서 속수무책인 채로 굴종해 가는 힘없는 식민지인에 대

44) 이태준, 『달밤』, 「봄」, 깊은샘, pp.158~159.

한 애정이라 할 수 있다.⁴⁵⁾

『촌뜨기』는 장군이라는 화전민이 이농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작품으로, 산속의 화전민까지도 일제에 의해 삶의 터전을 잃고 가족이 흩어져 방랑을 해야 하는 척박한 시대상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일제시대 하층민의 소외와 궁핍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농민들은 일제의 토지수탈정책으로 소작료에다 각종 세금에 시달리다가 이농민이 되어 불우한 도시 노동자로 전락하게 되고, 이로 인한 가정파괴와 겹쳐지는 삶의 궁핍상이 그려지고 있다. 이러한 소외와 궁핍의 노동자, 농민들은 그 당시 사회현실 속에서 어쩔 수 없는 희생자들인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보내는 상허의 시선은 동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갈등과 좌절의 지식인상

이태준 단편소설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지식인들은 당시의 시대적이고 사회적인 모순에 좌절해 가는 나약한 인물들로 등장한다. 이러한 지식인 주인공들은 이 시대에 대한 작가의 입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식인 주인공에는 사회현실과의 갈등을 통해 좌절을 겪게 되는 인물 유형과 작가 자신의 자전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지식인의 자기반성을 보이는 인물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갈등의 인간상

이상을 실현하려다 결국 억압된 상황에 좌절하는 식민지 지식인의 갈등하

45) 박건명, 「이태준 단편소설에 나타난 인물유형연구」, 『건국어문학제15·16합집』, 1991.

는 모습을 그린 작품으로 『아무일도 없소』, 『고향』, 『실락원이야기』, 『어떤날 새벽』, 『삼월』 등이 있다.

『아무일도 없소』의 주인공 K는, ‘나의 붓은 칼이 되자, 저들을 위해서 칼이 되자. 나는 한 잡지사의 기자가 되는 것보다 한 군대의 군인으로 입영할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이상을 지닌 채 기자 생활을 시작하지만, 그는 ‘석달치 밥값! 뒤통이 물러앉은 구두!’라는 현실 문제와 만나면서 이상을 버리고 현실을 따라가는 자신에게 환멸을 느낀다. 또한 그가 신문사에서 하는 기획회이나 취재 활동은 좀 더 자극적이고 상업적인 소재를 찾는 쪽으로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신문의 판매 부수를 높이기 위해서 언론 자체도 상업주의적인 노선을 따를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적 일상 속에서 K는 ‘도꾸다네(특종감)’을 찾아내기 위해 매음촌을 배회하며 에로 기사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현실적이고 개인적인 욕망과 계몽주의적 지식인에 대한 스스로의 관념적 정체성 사이에서 발생하는 아이러니를 맛보게 된다. K는 ‘창부 같지도 않은 흰두루마기 입은 여인’을 만나, 그녀의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사회의 실상을 인식하게 된다. 그녀의 아버지는 만세 때 대동단에 끼어 해외로 나갔고, 남은 두 식구는 어렵게 살다가 그녀에게 치근대는 한 남자에게 생활을 의탁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몸만 망치고 더러운 병까지 얻게 되어 고소를 하였지만 밀매음죄로 도리어 유치장 살이를 하게 되고, 일주일만에 돌아와 보니 육순이 넘은 모친은 말도 못하고 누워 있지만 할 뿐이어서 할 수 없이 사내를 끌어 들였고, 이 사실을 안 모친이 자결을 했다는 것이었다. 결국 이렇게 해서 그 여인은 어머니의 시신을 감장하기 위하여 다시 밤거리를 나오게 되었다. K는 이 사정을 듣고는 동기간의 일처럼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그를 끌어안고 소리내어 울고 싶었다. 그는 독립지사의 딸이 몰락해가는 모습에서 민족이 몰락해가는 모습을 본 것이다.

‘저들을 위해서 나의 붓은 칼이 되리라 한 그 붓을 들고 자기는 무엇을

쓰러 나섰던 길인가? 고약한 놈이다!’ 하고 K는 얼마 안 되는 시재를 털어 놓고 사람 살리라고 소리나 지를 것처럼 주먹을 쥐고 서두르며 그 집을 뛰어나왔다.

그러나 세상은 얼마나 고요하라. 얼마나 평화스러우라. 어디선지 야경꾼의 딱따기 소리만이 ‘불도 나지 않았소, 도적도 나지 않았소, 아무 일도 없소’ 하는 듯이 느릿느릿하게 울려왔을 뿐이다.⁴⁶⁾

작가는 여기서 평화로운 세상의 겉모습 뒤에 내재해 있는 비참한 현실을 역설적으로 고발하고 있다. 일제 식민체제의 폭력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민족의 처절한 삶이 고요한 평화로 위장되어 반어적으로 그려짐으로써 작가는 일제식민정책의 현실을 극명하게 형상화시키고 있다.

『고향』은 비교적 강한 현실인식이 나타나는 자전적 성격의 글이다. 김윤건은 고아출신으로 자신의 힘으로만 동경에서 유학생생활을 하여 어렵사리 학업을 마친 인물이다. 그가 동경에서 돌아올 때 특별한 고향이 없는 그로서는 조선 전체가 그의 고향이었다.

‘나의 고향은 어디냐?’

윤건은 심사가 울적할 때마다 보던 책을 다다미 위에 집어 내던지고 그리운 곳을 훑아보곤 하였다.

함경북도 배기미나, 서울이나, 철원이나, 그저 막연하게 조선땅이나, 그러면 배기미나 서울이나 철원에 누가 나를 기다리고 있느냐, 아무도 없다. 배기미 같지도 않다. 서울도, 철원도 아닌 것 같다.

그러나 그는 이 말 끝에 연달아 “조선땅이 아니다”라는 말은 해 본 적이 없었다.

“어서 졸업하고 조선 가자.”

46) 이태준, 『달밤』, 「아무 일도 없소」, 깊은샘, p.151.

이 일념에서 그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남 다 자는 새벽 거리를 뛰어다
니며 어떤 때는 신문을 돌리고 어떤 때는 우유 구루마를 끌기에 육년 동안
제 잔등에 채찍질을 하여 왔었다.⁴⁷⁾

이렇게 힘들게 형설의 공을 이루어 고향에 돌아온 김윤건을 맞이하는
현실은 그가 상상했던 것과는 정반대였다. 모교와 신문사 등을 찾아가 보았
지만 그를 반겨주는 곳은 아무데도 없었다. 여관에서는 방세가 밀려 쫓겨난
다. 사회운동가인 박철을 찾아가지만 표리부동한 그의 언행에 환멸을 느끼
고, 우연히 은행원 친구를 만나 고급 음식점으로 따라 들어가나, 거기에서도
시대적 아픔을 외면하고 세속화, 속물화되어가는 일단의 지식인들을 보고
분노를 터뜨린다. 결국 6년만에 돌아온 모국, 의탁할 곳이 없던 김윤건은 유
치장의 신세를 지게 된다. 참담한 현실 속에서 한 지식 청년의 이상과 현실
의 괴리 사이에서 비롯된 삶의 아이러니를 그린 작품이다. 윤건의 아이러니
칼한 삶은 당대 현실을 밀도 있게 포착함으로써 이 시대 지식인이 좌절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것은 식민지 지식청년의 절망과
울분을 효과적⁴⁸⁾으로 그려놓고 있어서, 당시대 지식인의 모습을 진실되게
보여준 측면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주인공 윤건은 사리를 따져가며 이성적
으로 행동하는 인물이라기보다 민족 의식이나 정의감을 앞세운 저돌적 성격
의 인물이어서 회화화될 우려도 있지만, 그의 행위가 친일파들에 대한 징계
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그러한 성격적 특성은 오히려 장점으로 받아들여
진다.⁴⁹⁾ 이상과 현실의 낙차를 좁히지 못하고 좌절하는 지식인의 모습은
『실락원 이야기』나 『어떤날 새벽』에도 나타난다.

47) 이태준, 『달밤』, 「고향」, 깊은샘, pp.122~123.

48) 서종택, 「남월북 작가 작품연구」, 고려대학교 인문논집, 1989. 7. p.9.

49) 장영우, 『이태준 소설연구』, 태학사, 1996. p.85.

『실락원 이야기』는 소박한 이상을 실현하려는 젊은 지식인이 일제의 방해로 그 이상을 펼치지 못한 채 좌절되어 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주인공인 ‘나’는 궁벽한 산촌에 들어가 원시인의 양심과 순박한 눈동자를 그대로 지니고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며 동네에 수공업 문화를 보급하겠다는 소박한 이상을 가지고 동경에서 귀국한다. 주인공이 하필이면 상업문명과 물교섭한 수공업 문화를 일으키겠다고 결심한 것은 서구 근대자본주의, 좀 더 정확히 말해서 일제가 추진한 근대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⁵⁰⁾ ‘나’는 P촌을 발견하게 되고, 먼저 있던 교사가 그만두고 그 자리가 ‘나’에게 돌아와 내려가게 된다. 그곳은 그야말로 그가 꿈꿔왔던 곳으로 외부의 어떤 도움이나 간섭도 필요치 않는 곳이며, 순박한 사람들이 욕심없이 살아가는 작은 마을이었다. 신명 의숙이란 학교를 거의 혼자 도맡다시피하여 학생들을 가르치며, 마을 사람들의 신망을 받게 되었다. P촌은 조선말을 하지 못하고 다른 국어가 존재하며, 백성이 경관을 우대하고, 경관에 의해 마을사람 모두가 지배되고 있는 사회였다. ‘나’는 이러한 사회를 제 땅에서 갈아 먹게 하고, 우리의 말과 권리를 찾게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나’는 지배계층으로부터 압박과 회유를 받지만,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대로 행동하는 개혁의지를 보인다. 그러나 ‘나’의 행동에 대해 주재소 소장은 감시를 하고 부당한 압력을 가하기 시작한다. 마을사람들이 ‘나’를 중심으로 단합하여 잘 되어가는 것이 못마땅했던 것이다. 감정은 갈수록 날카로워져, 홍수로 인한 보수 공사를 하면서 ‘나’는 소장과 직접 맞대항해 소장의 ‘하늘같은’ 자존심을 여지없이 짓밟아 버린다. 결국 ‘나’는 마을 사람들이 섭섭해하는 모습들을 뒤로 하고 그 마을을 떠나온다.

50) 장영우, 『이태준 소설연구』, 태학사, 1996. p.86.

나는 정갓난이를 잊지 못한다. 그러나 그에겐 나를 단념하라고 이르고
온 것이다. 왜? 나는 P촌과 같은 낙원을 잃어버린 이상, 내 한 입도 건사
하기 어려운, 경제적으로 철저한 무능자인 조선 청년의 하나인 것을 깨닫
기 때문이었다.⁵¹⁾

『실락원 이야기』는 결국, 주인공의 좌절된 삶을 통하여 우리 민족을 분
열시키려는 일제정책이 폭로되었고, 그 좌절된 삶은 그들의 억압정치로 인
한 좌절임을 드러내고 있다.

『어떤날 새벽』에서는 ‘윤선생’이라는 지식인이 등장한다. 윤선생은 어느
시골 신흥학교에 투신하여 헌신적으로 교육사업에 열정을 쏟지만, 결국 재
정난으로 학교 허가 철회와 해산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그로 인해 윤선생
은 충격을 받아 반미치광이가 되어 동리를 떠난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
에 그 윤선생은 강도가 되어 옛 제자의 집에 우연히 나타난다. 『어떤날 새
벽』은 과거 윤선생이 신흥학교로 부임해 왔을 당시의 학생이었던 아내가
들려 준 이야기를 ‘나’가 재구성하여 서술하는 액자 형식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 교육 환경도 미비하고 보수도 없는 시골 학교에 소박한 꿈을 안고 찾
아와 자진해서 헌신을 다하는 젊은 윤선생은 민족의식을 지닌 인물이다. 그
의 의지가 좌절되자 그는 미치광이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의 분노는
현실에 대한 대응양상인 것이다. 그는 정당하고 의미있는 이상을 이루기 위
해 헌신적으로 노력한다.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것은 그의 이상을 삼을 대
상마저 제거당하고, 자신을 미치광이로 보아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려 했던
사회에서 쫓겨나는 현실뿐이다. 작가는 윤선생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학교가
폐쇄된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일제의 부당한 탄압을 드러내고 있다. 참다운
뜻을 지닌 지식인이 식민지 현실 속에서 전략, 좌절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

51) 이태준, 『달밤』, 「실락원 이야기」, 깊은샘, p.183.

면서, 도둑질을 하지 않고는 살 수 없을 만큼 궁핍화된 현실을 보여주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삼월』에서 형상화되고 있는 지식인의 모습은 더욱더 비참하다. 졸업에 임박하여 졸업에 필요한 이백 원을 얻기 위해 시골집에 내려온 창서가 졸업만하면 금세 취직이 되는 줄 아는 부모님을 보면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창서가 고향에 내려와 밀린 학비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한 채 아내와 나누는 다음과 같은 대화는 식민지 지식인의 고민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이다.

“아버님은 말끝마다 난 인전 모른다. 내년 삼월꺼정이지 하시면서 당신을 하눌처럼 믿는데…… 그리구 자랑이 여간 아니시라우. 안협 집 영감이 요즘 빚독촉을 성화하듯 하는 게 뭐 당신이 대학 졸업하는 걸 샘이 나 덤비는 거라구 그렇게 욕을 하셨다우. 그래 싹을 다 하셨는데 아까두 올라가시더니 또 그런 소릴 하셨나 봐. 내려오시면서 내 자식이 대학교 어찌구 안 그리십디까?”

“……………”

“되런님두 내년 봄엔 중학교에 가야지…… 그건 당신이 으레 시킬걸루 아시구들 걱정두 았구 계신데……”

“……………”

창서는 잠든 채하고 잠자코 말았으나 잠이 올 리 없었다. ‘괜히 공불했구나!’하는 생각 따위는 인제는 시들부들하였다.

‘차라리 차라리…… 삼월이 오기 전에 아버지와 어머니 희망을 안으신 채……’

하는 생각을 다 하면서 닭 우는 소리를 들었다.⁵²⁾

52) 이태준, 『달밤』, 「삼월」, 깊은샘, pp.332~333.

자신만 바라보고 있는 가족들을 실망시킬 수 밖에 없는 현실 앞에서 그들이 죽기를 바라는 창서의 심정을 통해 당시의 절박한 상황이 그대로 드러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식민지 지식인이 식민지 현실에 대항하여 갈등을 벌이는 경향의 작품들을 살펴보았다. 이 작품들은 대부분 개인과 사회와의 갈등을 주조음으로 하여 개인이 파멸되어 가는 과정을 다룬 것들이다. 작중인물은 결코 상황의 부당한 폭력과 회유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을 지키려 노력한다는 점에서 위 작품의 긍정적 의미가 찾아진다.⁵³⁾

2) 자기반성의 인간상

이태준은 자신을 대변하는 지식인을 등장시켜 반성과 모색의 자세를 보이기도 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작품에는 『장마』, 『쾌강냉』, 『토끼이야기』를 들 수 있다.

『장마』는 여름철 장마로 인해 방안에 갇혀 지내던 화자가 아내와 말다툼을 하고 바람을 쐬 겸 시내로 나왔다가 오가며 만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통해 현재의 자기 위치를 다시 생각하고 반성한다는 것이 대략적 줄거리다. ‘장마’라는 배경 설정은 1930년대 일제 치하의 암울한 상황으로 비유될 수 있다. 이 작품은 언뜻 보기에 잡다한 일상 이야기를 하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일제의 저급하기 이를 데 없는 식민 정책을 비판한 작품이다.

안국동(安國洞)서 전차로 갈아탔다. 안국정(安國町)이지만 아직 안국동이래야 말이 되는 것 같다. 이 동(洞)이나 이(里)를 깡그리 정화(町化)시킨 데 대해서는 적지않은 불평을 품는다. 그렇게 비즈니스의 능률만 본위로 문화를 통제하는 것은 그릇된 나치스의 수입이다. 더구나 우리 성북동(城

53) 장영우, 『이태준 소설 연구』, 태학사, 1996. p.98.

北洞)을 성북정(城北町)이라 불러 보면 ‘이주사’라고 불러야 할 어른을 ‘리상’이라고 남실거리는 격이다. 이러다가는 몇해 후에는 이가니 김가니 박가니 정가니 무슨 가나가 모두 어수선스럽다고 시민의 성명까지도 무슨 방법으로든지 통제할지도 모른다.

모든 것에 있어 개성(個性)을 살벌하는 문화는 고급한 문화는 아닐 것이다.⁵⁴⁾

동이나 리로 불렀던 고유의 명칭을 일본식인 정으로 바꾼데 대한 작가의 불만을 위 인용에서 엿볼 수 있다. 작가는 이런 식의 문화 통제는 나치스의 통제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더 나아가 그는 일제가 창씨개명을 강요할지도 모른다는 점을 이미 예견하고 있다. 이런 상황들이 지식인들을 방황하게 하는 요인이 되며, 더욱 가중될 현실의 압력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만든다. 작가는 이런 지식인들의 위상을 드러냄으로써 부조리한 시대의 허상을 폭로하고 있다. 화자는 자신도 진실한 어떤 가치를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반성하는데, 가령 진정한 친구의 의미를 따져 묻는 일이 그것이다. 그는 일상에서 타성에 젖어 익숙해지기 쉬운 것조차 자신의 의지와 상반되는 것은 결코 무의식적으로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삶의 긴장을 보여준다. 이는 삶의 진지함에서 비롯되며 식민지 현실에서 무감각해질 수 있는 것조차 경계하는 지식인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패강랭』은 『장마』에서 보여준 현실의 냉철한 인식과 아울러 반성적인 자기직시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패강랭』을 쓰고 난 이후 작가는 자신의 소설세계를 비판하고 자책⁵⁵⁾하며, 자신의 작품을 통해 현실을 극복하는

54) 이태준, 『돌다리』, 「장마」, 깊은샘, p.58.

55) 이태준, 「참다운 소설가 노릇 이제부터 할 결심이다」, 『상허 문학 독본』, pp.258~260.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소설은 주인공 현을 통해서 상허 자신의 심정을 말하고 있는 신변 소설로 10년만에 평양에 내려와서 느낀 심정과 작가로서의 위기의식이 드러나 있다. 현은 평양에서 늘어난 것은 경찰서와 빌딩이고, 아름다운 풍속이 사라진 모습을 보고 폐허와 같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심정으로 실업가 김과 조선어와 한문을 가르치다 일본의 조선어 말살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시간 강사로 떨어진 박과 더불어 술을 마시다가, 김이 현에게 방향 전환을 하여 팔리는 글을 쓰라고 주문하는 데 흥분하여 행패를 부리고, 밖으로 나와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는 장면으로 끝난다.

“이상견빙지(履霜堅冰至)……”

주역(周易)에 있는 말이 생각났다. 서리를 밟거든 그 뒤에 얼음이 올 것을 각오하란 말이다. 현은 술이 확 깨인다. 저고리 셔츠를 여미나 찬 기운은 품속에 사무친다. 담배를 피우려 하나 성냥이 없다.

“이상견빙지…… 이상견빙지……”

밤 강물은 시체와 같이 차고 고요하다.⁵⁶⁾

누구보다도 강한 신념과 자존심을 지녔던 상허는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문학외적 압력이 가중되자 자신의 신념과는 전혀 무관하게 작품활동이 어려워지리라 하는 것을 예견한다. 결국 그것은 상황의 압력과 무력한 자신의 문학에 대한 반성임과 동시에 작가적 변신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토끼이야기』는 전직 신문기자인 ‘현’이라는 인물이 아내의 성화에 못이겨 토끼 사육을 하다가 수지타산이 안맞아 그만두고 토끼를 처치하기까지를 그린 작가의 신변적 체험을 다룬 소설이다. 주인공 ‘현’은 동아·조선일보가 폐간되는 바람에 실직⁵⁷⁾하고 생계의 위협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며칠동

56) 이태준, 『돌다리』, 「쾌강령」, 깊은샘, p.115.

안 술을 마신다. 며칠을 방황하던 ‘현’은 아내의 채근을 받아 하는 수 없이 생계를 위해 토끼를 기르기 시작한다. 하지만 일제의 공출로 인한 식량 사정의 악화로 토끼 사료의 공급은 점점 어려워진다. ‘현’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아내의 모교에 가서 클로버를 뜯어오고 김장철에는 무청을 먹이지만 겨울이 되자 더 이상 먹이를 댈 수가 없게 된다. 사료값이 너무 비싸 토끼 40여 마리를 팔지 않으면 안 될 난관에 부딪힌다. 토끼를 죽여 껍질을 벗겨내야 할 판인데, 현 자신은 차마 끔찍스러워서 죽이지 못한다. ‘현’은 토끼를 죽이기 위해 책까지 사 보면서 대책을 모색하나 연약한 마음 탓에 차일피일 미루고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런데 임신한 아내가 나선다.

아내는 토끼털과 선지피가 엉킨 두 손을 짝 벌려 내어민다. 현의 머리 속은 불현듯, 죽은 닭의 눈을 신문지로 가려 놓고야 썰던 아내의 그전 모습이 지나친다. 콧날이 찌르르하며 눈이 어두워졌다.

피투성이의 짝 벌린 열 손가락, 생각하면 그것은 실상 자기에게 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현은 필씩 주저앉을 듯이 먼 산마루를 쳐다보았다. 산마루엔 구름만 허영게 떠 있었다.⁵⁸⁾

한때는 여학교를 다니면서 낭만적인 외국 시를 읽으면서 꿈을 키웠지만 지금은 한낱 가난한 남편의 초라한 아내로 전락해 꿈을 잃고 현실 속에서 악착스럽게 살아가야 하는 현의 아내가 토끼를 죽이게 되는 것이다. 겁이 많아 죽은 닭도 제대로 썰지 못하던 아내의 이러한 변모에서 ‘현’은 식민지

57) 일제는 1940년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문장, 인문평론 등의 한국인의 신문 잡지를 폐간하고 다수의 사립 학교와 종교 학교들을 폐쇄하였다. (강만길, 『한국 현대사』, 창작과 비평사, 1989. pp.186~187) 실제로 작가는 1940년 ‘동아일보’의 폐간 및 1941년 ‘문장’의 폐간으로 실업자가 되었다.

58) 이태준, 『돌다리』, 「토끼 이야기」, 깊은샘, pp.183~184.

비극의 기막힌 현실을 발견하고 위기의식을 느끼며 좌절하고 만다. 즉 작가는 당시의 암울한 시대 상황을 주인공과 그의 아내의 신상 변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소설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지식인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현실에 대응하는 자세를 보이고 자기 위치를 회복하고자 반성하는 자세를 갖는다. 또한 암울한 당대의 현실 상황을 예리하게 파악하여 미래에 대해서 정확한 예견을 보이며, 지식인으로서 자기반성의 자세도 보여준다.

3. 질박한 인간상

상허의 단편소설에는 어리숙한 인물의 회화적 행동을 그린 작품이 다수 있다. 이러한 질박한 인간상에는 『달밤』의 황수건, 『손거부』의 손서방, 『색시』의 색시를 손꼽을 수 있고, 『철로』의 철수 또한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인물들의 특징은 모두 조금은 어리숙한 바보형 인물들로서 성격은 순진하고 맑으나 사리를 올바르게 판단하는分別력이 부족하다.

『달밤』은 한적한 시골 풍경을 보이는 성북동에서 황수건이란 인물과 ‘나’사이에 벌어지는 몇 가지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한 소설이다. 황수건은 ‘태고때 사람처럼 우둔하면서도 천진스런 눈을 가지고 자기 동리에서 처음 들어서는 손에게 가장 순박한 시골의 정취를 돋워주는’ 순수한 인물이다. 그는 원배달로부터 20여부 떼어주는 신문을 배달하고 월 3원 정도 보수를 받는 성북동의 보조 신문 배달부로서 그의 평생 소원은 원배달부가 되는 것이다. 그는 세속의 이해를 쫓는 사람들과는 달리 소박하고 단순한 인물이다. 그의 이런 태도는 남들의 눈에는 반편으로 보이지만, 황수건 자신은 주어진 일에 충실하고 그 속에서 만족을 느끼는 나름대로의 온전한 삶을 누리는 셈

이었다. “그와는 아무리 오래 지껄이어도 힘이 들지 않고, 또 아무리 오래 지껄이고 나도 웃음밖에 남는 것이 없어 기분이 거뜨해 지는 것도 좋다”는 태도에서 알 수 있듯이 ‘나’가 황수건에게 감정적으로 끌리는 이유는 바로 그의 ‘천진스러움’과 ‘순박한 순정’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순수함을 지닌 그는 똑똑치 못하다는 이유 때문에 보조 배달 일마저 잃고 만다. ‘나’는 ‘친구가 큰 사업에나 실패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못 만나는 섭섭뿐 아니라 마음이 아프기’까지 하였고, 그를 쫓아내버린 ‘세상의 야박함’을 원망하였다. 그의 처지가 하도 딱해 ‘나’는 그에게 3원을 주며 참외 장사를 하도록 권한다. 하지만 세상은 황수건 같은 모자란 인물들이 살아가기에는 힘든 곳으로 그는 참외장사도 실패하고 아내마저 달아나는 비극을 맞는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황수건은 어느날 밤, 큰 것으로 포도 대여섯 송이를 나에게 건네준다. 그것은 그에게 도움을 주었던 ‘나’를 위해 앞뒤 가리지 않고 포도원에서 훔쳐온 것이다.

나는 그 다섯 송이의 포도를 탁자 위에 얹어 놓고 오래 바라보며 아껴 먹었다. 그의 은근한 순정의 열매를 먹듯 한 알을 가지고도 오래 입안에 굴려 보며 먹었다.⁵⁹⁾

그의 따뜻한 인정에 감동한 ‘나’는 포도송이를 ‘순정의 열매’로 인식하고, 그것을 음미하면서 그를 오래 기억하려 한다.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없이 다만 아내가 도망간다는 사실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그를 통해 삶의 아름다움을 느낀다. 이 작품은 천성적으로 순박한 황수건의 인물됨을 형상화하고 있으며 이와 아울러 현실적인 어려움도 은근히 보여주고 있다.

59) 이태준, 『달밤』, 「달밤」, 깊은샘, p.265.

불빛 없는 성북동 길 위에는 밝은 달빛이 길을 깔 듯하였다.
 그런데 포도원계를 올라오노라니까 누가 맑지도 못한 목청으로,
 “사……계……와 나……미다까 다메이……끼……까……”
 를 부르며 큰 길이 좁다는 듯이 휘적거리며 내려왔다. 보니까 수건이 같
 았다. 나는,
 “수건인가?”
 하고 아는 체 하려다 그가 나를 보면 무안해할 일이 있는 것을 생각하
 고, 획 길 아래로 내려서 나무 그늘에 몸을 감추었다.
 그는 길은 보지도 않고 달만 쳐다보며, 노래는 이 이상은 외우지도 못하
 는 듯 첫 줄 한 줄만 되풀이하면서 전에는 본 적이 없었는데 담배를 다 퍽
 퍽 빨면서 지나갔다.
 달밤은 그에게도 유감한 듯하였다.⁶⁰⁾

이 마지막 장면에서 작가는 유감하게 느껴지는 달밤을 배경으로 하여, 세
 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황수건을 묘사함으로써 애상적
 인 분위기를 창출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작가는 다음과 같은 연상 작
 용을 유도한다. 즉 당시의 상황의 암울함을 달밤으로 표현하고, 그 달빛 아
 래서 담배를 퍽퍽 빨면서 노래를 읊조리는 황수건의 형상으로 식민지 치하
 를 살아가는 조선 민족 전체를 우의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우의적 방
 법으로 작가는 식민지 현실의 야박함과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서글픈
 심사를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생업을 잃고 방황하는 황수
 건의 모습이 바로 조선 민족 전체의 모습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
 고 그것은 황수건의 성격을 고정화시키지 않고, 사건의 추이에 따라 변화시
 킴으로써 더욱 생동감있게 제시되고 있다.

60) 이태준, 『달밤』, 「달밤」, 깊은샘, p.265.

『손거부』의 손거부도 황수건과 비슷하게 우습고 바보스러운 인물이다. 『손거부』도 『달밤』과 같이 관찰자적 화자인 ‘나’를 통해 질박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 작품으로 역시 성북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손서방은 ‘무슨 일이 벌어지거나, 혼인이거나 집터 닦는 데거나 우물 파는 데거나, 하다못해 뉘집 아이가 넘어져 다쳐 가지고 떠들썩하는 데라도 손서방이 아니 나서는 데는 별로 없는’ 성북동에서 인기있는 인물이다. 일정한 직업은 없지만 천성이 착한 사람이었다. 어느날, 동네에서도 일 잘해 주고 각뚝하기로 소문난 손서방이 ‘나’의 집을 찾아왔다. 문패를 써 달라며 사육배판 크기의 널빤지를 가지고 온 것이다. 거기에 호구 조사 때 방패막이로 식구의 이름을 다 적어 달라는 것이다. 그 이후로 손서방은 자주 동네 소식을 가지고 들렸으며, 어느 날은 아들의 학교 입학 문제로 찾아왔다. 손서방은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 아들은 저능아로 학교에서 퇴학당한 다. 하지만 그는 아들의 이러한 점을 밝히기를 꺼려하고, 거짓말을 한다.

“뭐 대학교까지나 시켜야지, 그렇지 않군 무슨 회사나 상점 고씨까이밖 에 못 된대니 그걸 누가 시킵니까. 막벌이해 먹는 게 마음 편협죠. 안 그렇 습니까? 그래 학교서두 자꾸 데릴러오구 저두 그냥 댕기겠단 걸 애저녁에 고만두라구 말렸습시다.”⁶¹⁾

그는 이런 따뜻한 부성애와 함께 세상을 합리화시키며 살아가는 낙천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위 인용 속에는 일제교육정책의 허구성에 대한 비판도 담겨 있다. 손거부는 『달밤』의 황수건과 일맥상통하는 인물로, 그를 엮신 여기기는커녕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웃음을 머금게 한다. “거부·대성·복성·녹성”과 같이, 자신과 아들들의 이름이 실제의 삶과는 상반되는 아이러

61) 이태준, 『달밤』, 「손거부」, 깊은샘, p.314.

니를 불러 일으키고 있음을 손거부 자신도 인식하고 있다. 그렇기에 손거부는 “어디 이름대로 되나요?”라고 반문하면서도 그런 명명을 통해 자신의 소박한 꿈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다.

『색시』는 일년 동안 ‘나’의 집에서 같이 생활하던 식모의 이야기로 작가의 동정적 시선이 두드러진 작품이다. 색시는 시어머니의 이간질로 남편과 헤어져 식모살이를 하는 눈물겨운 처지이나 조금도 소심한 기색이 없이 무엇이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성미이다. 킁킁 웃기를 잘 할 뿐만 아니라 칠칠치 못하여 세수대야 같은 것을 뺏뺏이 선 채로 내던지는 선머슴 같은 인물이다. 그는 자신의 덜 떨어진 사고와 행동을 생각지 않고 이웃집 대학생을 연모하다, 그 대학생이 애인인 듯한 여대생들과 함께 노는 것을 보고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받고 식모살이를 그만두고 사라진다.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에 드는 상대를 혼자 연모하다 실의에 빠지는 어리숙한 인물은 색시 외에 『철로』의 ‘철수’의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색시』의 여주인공과 『철로』의 철수는 모두 『달밤』의 황수건이나 『손거부』의 손서방과는 얼마간의 거리를 갖고 있는 인물들로서 바보형 인물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처지는 생각지 않고 자신이 생각하는 행복을 무리하게 잡으려다 실의에 빠지는 인물들이다.

상허가 이런 질박한 인물형을 작품의 주인공으로 채택한 것은 지식인으로서 일제란 거대한 강압적 권력집단에 항거하지 못하고 심정적으로만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자신과 자신보다도 더 못한, 상황순응적인 인물들을 비꼬기 위한 의도도 내포되어 있다.⁶²⁾

4. 노년 인물의 현실수용

62) 박건명, 「이태준 단편소설에 나타난 인물 유형 연구」, 『건국어문학 제15·16 합집』, 1991. pp.326~327.

이태준 소설에는 소외로 말미암아 불행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노인들을 만날 수 있다. 이것은 작가가 지닌 상고주의와 호고취미와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영월영감』, 『돌다리』, 『불우선생』에서는 적극적이고 행동적인 노인상을 제시하고 있으며, 반면 『복덕방』, 『아담의 후예』, 『행복』, 『우암노인』 등에서는 궁상맞게 살아가는 초라한 노인상을 제시하고 있다

1) 적극적 인물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노인을 등장시켜 무기력하게 현실에 머무르는 젊은이들의 자기반성을 유도하는 작품으로 먼저 『영월영감』을 들 수 있다. 젊은 지식인인 성익은 고서적과 난 가꾸기와 같은 호고 취미를 지니고 있는 인물이다. 어느날 성익이 집에 들어서자, 어렸을 때는 무서워하던 영월 아저씨가 와 계셨다. 젊어서 영월 군수를 지냈던 영월 영감은 당시의 지식층이었다. 다음은 영월영감을 묘사한 대목이다.

키가 훗칠하고, 이글이글 타는 눈방울이 늘 술 취한 사람처럼 화기 띤 얼굴에서 번뜩일 뿐 아니라 음성이 행길에서 들더라도 찌렁찌렁 울리는 데가 있는 어른이어서, 영월 할아버지 오신다 하면 아이들은 울음을 그치었다. 위엄은 아이들이나 하인배에뿐 아니라 그분과 동년배요 항렬로는 도리어 위 되는 이라도 영월 영감이 오는 눈치면 으레 물었던 담뱃대를 뽑아 들고 길을 비키었다.⁶³⁾

위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그는 대쪽 같은 성격에 위엄과 정열을 지닌 적극적인 인물이다. 그는 현실을 정상적이고 정당한 것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63) 이태준, 『돌다리』, 『영월 영감』, 깊은샘, p.117.

거의 은거하다시피 하다가 3·1운동에 가담하여 4.5년의 옥고를 치룬다. 그리고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갑자기 논밭을 팔고는 경향 각지를 떠돌아다닌다. 그 후 생사조차 모르고 십여 년이 넘게 살아온 어느날 조카 성익의 집에 나타난 것이다. 그는 성익에게 천원을 융통해 줄 것을 부탁한다. 성익은 아저씨의 인품을 믿기에 소중히 보관하고 있던 골동품을 내다 팔아 칠백원을 마련해 준다. 1년 뒤 성익은 세브란스 병원에서 온 전갈을 받는다. 달려가 보니 영월영감이 광산사고로 온통 붕대를 감고 누워 있었다. 영월영감은 병원에 누워서도 금광사업에 대한 집념을 누그러뜨리지 않는다. 그에게 있어 금은 새로운 힘을 주는 존재, 즉 우리 민족이 되살아날 수 있고 국권이 회복될 수 있게 하는 바탕이 되는 존재다. 작가는 그동안 물질적인 것에 대해 심한 반감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보아 왔는데 이 작품에서는 예외적으로 물질적인 힘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노인이 폐혈증으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자, 성익은 시내 광산 사무소에서 진열용 작은 노다지 한 덩이를 억지로 사 가지고 병원에 돌아온다. 영월영감은 자기 금광에서 노다지가 나왔다는 성익의 말에 노다지를 직접 확인하고는 숨을 거둔다. 성익은 그를 장사지내고 돌아오는 길에 그가 하던 말 ‘서른 둘! 호랑이같은 때로구나! 왜 들 가만히들 있니!’하는 말을 중얼거리려 본다.

“넌 너의 아버님 너무 닮는구나! 전에 너의 아버지께서 고석을 좋아하셔서 늘 안협(安峽)으루 사람을 보내 구해 오셨지…… 그런데 난 이런 처사(處士) 취민 대 반대다.”

“왜 그러십니까?”

“더구나 젊은이들이…… 우리 동양 사람은, 그중에두 우리 조선 사람이 지. 자연에들 너무 돌아와 걱정이야.”

“글썸시다.”

“자연으루 돌아와야 할 건 서양 사람들이지. 우린 반대야. 문명으루, 도회지루, 역사가 만들어지는 데루 자꾸 나가야돼…….”⁶⁴⁾

위에서 보듯이 영월영감은 젊은이들에게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생활 태도를 촉구하고 있다. 역사에의 참여를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그 자신이 금광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도 이 ‘역사가 만들어지는 곳’으로 가기 위한 한 방편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3·1운동으로 옥살이를 하면서 영월영감이 터득한 결론은, 우리 민족에게 절대 필요한 것이 힘이라는 것이다. 그 힘은 돈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영월영감의 현실 인식을 볼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

“막연이겠지…… 힘 없이 무슨 일을 허나? 흥경래두 돈을 만들어 뿌리지 않았어? 금 같은 힘이 어딴나? 금 캐기야 조선같이 좋은 데가 어딴나? 누구나 발견할 권리가 있어, 누구나 출원하면 캐게 해, 국고보조까지 있어, 남 다 허는 걸 왜 구경만 허구 앉았어?”

“이제 와 아저씨 금력을 믿으십니까?”

“이제 와서가 아니라 벌써 여러 해 전부터다. 금력은 어디 물력뿐이냐? 정신력도 금력이 필요한 거다.”

(중략)

“조선땅엔 금은 아직 무진장이다. 어느 시대구 어느 나라서구 불변가치를 갖는 게 금밖에 또 있니? 힘없이 움죽일 수 있니? 금만한 힘이 있니?”

“………….”

“금을 금답게 쓰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들 금을 캐내니? 땅이 울게다! 땅이…….”⁶⁵⁾

64) 이태준, 『돌다리』, 「영월 영감」, 깊은샘, pp.119~120.

65) 이태준, 『돌다리』, 「영월 영감」, 깊은샘, pp.122~124.

이처럼 영월 영감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불변가치를 지닌 금이 바르게 쓰여져야 한다는 확신에 입각하고 있다. 또 이러한 확신과 적극적인 행위로 영월영감은 ‘호랑이같은 젊은 나이’에 무기력에 빠져 사회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성익에게 호고취미가 처사취미이므로 좋지 않다는 점과 젊은 사람이 산과 자연에 파묻힐 것이 아니라 사회로 나와 일을 해야 한다고 꾸짖는다. 이러한 영월 영감의 질책에 작중화자인 나는 반성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무력한 자신을 돌이킨다.

젊은이를 각성시키는 적극적인 노인의 유형은 『돌다리』에서도 등장하는데 창섭의 아버지가 이 역할을 맡고 있다. 이 작품에서 아들 창섭은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셈에 밝은 냉정한 인물로, 이와 대응하여 창섭의 부는 근면하고 신념이 강한 노인으로 묘사되어 있다. 창섭은 어려서 의사의 오진으로 죽은 누이동생 창옥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의사가 되기를 결심하고, 결국 권위있는 의사가 된다. 그는 고향에 내려와 자기의 병원을 확장하기 위해 아버지에게 땅을 팔 것을 권유하지만, 아버지는 땅에 대해서 이해(利害)를 초월한 종교적인 신념을 말하면서 거절한다.

“천금이 쏟아진대두 난 땅은 못 팔겠다. 내 아버님께서 손수 이룩하시는 걸 내 눈으루 본 밭이구, 내 할아버님께서 손수 피땀을 흘려 모신 돈으루 작만허신 논들이야. 돈 있다구 어디가 느르지는 같은 게 있구, 독시장밭 같은 걸 사? 느르지눈독에 선 느티나무 할아버님께서 심으신거구, 저 사랑마당엿 은행나무는 아버님께서 심으신 거다. 그 나무 밑에를 설 때마다 난 그 어른들 동상(銅像)이나 다름없이 경건한 마음이 솟아 우러러보곤 현다. 땅이란 걸 어떻게 일시 이해를 따져 사구 팔구 허느냐? 땅 없어 봐라, 집이 어딴으며 나라가 어딴는 줄 아니? 땅이란 천지만물의 근거야. 돈 있다구 땅이 뭇지두 모르구 욕심만 내 문서쪽으로 사 모기만 하는 사람들, 돈

놀이처럼 변리만 생각허구 제 조상들과 그 땅과 어떤 인연이란 건 도시 생각지 았구 헌신짝 버리듯 하는 사람들, 다 내 눈엔 괴이한 사람들루밖엔 뵈지 았드라.”⁶⁶⁾

땅에 대한 애착이 강한 아버지의 심정과 자식의 의욕 사이에서의 갈등을 대조시켜 전자를 부각시키고 있는 장면이다. 자신이 고쳐놓은 돌다리를 건너 저녁차를 타고 가 버리는 아들을 바라보며 외롭고 안스러운 마음을 아니 가질 수는 없었지만, ‘사람이란 하늘 밑에 사는 날까진 하로라도 천리(天理)에 방심을 해선 안되는 것’임을 믿고 있는 아버지로서는 그 시대와 현실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결단이었고, 아들도 이에 순응하고 만다. 작가는 옛것을 소중히 생각하는 아버지의 근본적 가치관과 삶의 자세를 통해 식민지 현실에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 현실을 극복하는 바탕으로 제시한다. 일제말기 가장 암울한 시대에 발표된 이 작품에서 작가는 적극적인 저항을 보이지는 않지만 정신적인 힘으로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불우선생』에서도 ‘활기차고 적극적인’ 노인 세대와 ‘소극적이고 무기력한’ 젊은 세대 사이의 모습이 대조를 이루면서 긍정적인 노인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 작품은 같은 여관에 든 한 노인을 젊은 ‘나’가 관찰하면서 겪게 된 일련의 에피소드를 담고 있다. ‘나’는 여관에서 숙식하면서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그 역시 불안정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보잘 것 없는 인물이다. ‘나’는 어느 여름날 저녁에 새로 손님으로 청해 든 불우선생(송선생)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고서를 낭독하는 것을 듣고 무조건적인 경외심과 동경을 갖게 된다. 그날밤 노인을 청해 들은 그의 전력은 선비나 지사의 풍모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66) 이태준, 『돌다리』, 『돌다리』, 깊은샘, p.238.

자기는 십여 년 전만 하여도 천여 석 추수를 받아 먹고 살던 귀인이었다는 것과 그 재산이 한말(韓末) 풍운 속에서 하룻밤 꿈처럼 얻은 것이라 불순한 재물인 것을 깨닫던 날부터는 물 피내 버리듯 하였다는 것과 한동안은 시대일보(時代日報)에도 중요 간부였었고 최근에 중외일보(中外日報)에도 자기가 산과역을 한 사람 중의 하나였다는 것과, 오늘의 자기는 이렇게 행색이 초췌해서 서울을 객지처럼 여관으로 돌아다니지만 여섯 식구나 되는 자기 집안이 모두 서울 안에 있다는 것과, 이렇게 여관으로 다니는 것은 집에선 끼니가 간데없고 친구들의 신세도 씩씩할 뿐만 아니라 친구들이라야 모두 신문사 간부급의 인물들이라 그들의 체면도 생각해야 겠고, 또 그네들이 요즘 와선 전날의 기상(氣象)들이 없어지고 무슨 은행이나 기업회사(企業會社)의 중역처럼 아니꼬움 부리는 것이 메스꺼워 찾아가지 않는다는 것과, 또 이렇게 여관으로 다니면 동지라 할까 자기 같은 사람도 알아 주는 사람을 만날까 함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다.⁶⁷⁾

불우선생은 일신(一身)의 신고(辛苦) 따위는 전혀 돌보지 않는, 제때 식사도 해결하지 못하는 경제력이 전혀 없는 무능력자이지만, 시대상황의 변모에는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네…… 그런데 요즘 일중 문제가 꽤 주의를 끌지요?”

한다.

“글쎄요. 저는 그런 방면엔 문외한이올시다.”

하니,

“그럴 리가 있소, 저렇게 발발한 청년 시기에…… 요즘 극동 풍운이 맹랑해지거든…….”

하는 데는, 불우 선생은 돌연히 지난 여름 의신여관에서 보던 때와 같은

67) 이태준, 『달밤』, 「불우선생」, 깊은샘, pp.163~164.

형형(炯炯)한 정열의 안광이 빛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는 나의 음식을 먹으면서도 나를 자기가 먹이는 듯 무엇인지 나를 압박하는 것이 있었다.⁶⁸⁾

불우선생은 여전히 무위도식하며 방랑하는 무능력자이지만, 현실에 대한 그의 적극적인 관심은 ‘나’에게 젊은이로서의 자책감으로 강한 압박감을 준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영월영감』, 『돌다리』, 『불우노인』에서는 미래 지향적이고 의지적인 노인들이 등장하여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보여준다. 이 세 작품에서는 구세대와 신세대간의 대립을 통해, 구세대 즉 노인의 경우 긍정적인 인물로, 신세대 즉 젊은 지식인의 경우는 구세대와 대비하여 부정적인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작가는 식민지 시대의 젊은 지식인들의 자족적인 삶의 태도와 무기력, 막힌 세계에서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성을 비난하는 메시지⁶⁹⁾를 전하고자 한 것이다.

2) 순응적 인물

이태준 소설에 등장하는 노인은 앞에서 살펴본 작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현실 사회에서 소외되어 궁상맞게 살아가는 초라한 모습을 보인다. 이들은 시대와 인생의 뒷전으로 밀려나서 전통과 과거에 대한 회고 속에서 몰락한 인생의 비애에 괴로워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대표작으로 『복덕방』을 먼저 들 수 있다.

『복덕방』은 인생퇴역의 노인들을 주인공으로 현실에 대한 소박한 의지

68) 이태준, 『달밤』, 「불우선생」, 깊은샘, p.170.

69) 박건명, 「이태준 단편소설에 나타난 인물 유형 연구」, 『건국어문학 제15·16 합집』, 1991. p.321.

와 그것이 불행하게 좌절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작품에 등장하는 세 노인은 모두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살아가는 인물들이다. 한말에 훈련원의 참위로 있었던 주인 서참위와 계속 사업에 실패만 하고 서참위의 복덕방에서 신세를 지고있는 안초시, 그리고 대서업을 하겠다고 일어공부를 하며 복덕방에 나와 소일하는 박희완 이 인물들은 기존 사회구조에서 얼마간은 소외된 인물들이다. 이는 서참위의 말에서 나타나는데, ‘한날 가쾌로 복덕방 영감으로 기생, 갈보 따위가 사글세방 한칸을 얻어 달래도 네-네하고 따라 나서야 하는, 만인의 심부름꾼’이 그들의 사회적 위상인 것이다. 안초시는 외롭게 죽음만 기다려야 하는 현재의 모습을 안타까워하지만, 젊었을 때를 회고하며 ‘다시 한 번 이 세상과 교섭해 보고 싶은’ 욕망을 지닌 인물이다. 그래서 안초시는 박희완 영감으로부터 토지 투기 권유를 받는다. 즉 축항 예정지를 아는 사람이 있으니 자금을 융통해 보라는 것이다. 이에 안초시는 무용을 하는 딸과 상의하여 딸의 연구소를 신탁 회사에 잡히고 삼천 원을 돌린다. 그렇지만 1년이 지난 후 그것은 ‘꿈이라도 너무 악한 꿈’으로 판명되고 안초시는 결국 음독 자살한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성공한 그의 딸 안경화는 아버지의 자살이 자신의 명망을 훼손시킬까봐 아버지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뤄 이를 은폐시킨다. 장례식에 참석한 서참위와 박희완 노인의 어둡고 쓸쓸한 마음이 공허하게 남아돈다.

“나 서참위세, 알겠나? 흥…… 자네 참 호살세 호사야…… 잘 죽었느니. 자네 살았으면 이만 호살 해 보겠나? 인전 안경다리 고칠 걱정두없구…… 아무튼지……”

하는데 박희완 영감이 들어서더니,

“이 사람 취했네그려.”

하며 서참위를 밀어냈다.

박희완 영감도 가슴이 답답하였다. 분향을 하고 무슨 소리를 한마디 했으면 속이 후련히 트일 것 같아서 잠깐 멍뚱하고 서 있어 보았으나,

“으흐흑……”

하고 울음이 먼저 터져 그만 나오고 말았다.

서참위와 박희완 영감도 묘지까지 나갈 작정이었으나 거기 모인 사람들이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아 도로 술집으로 내려오고 말았다.⁷⁰⁾

이 작품의 마지막 장면이다. 안초시의 장례식을 통해 세태의 일면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세 노인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늘 자립하고 싶어 했지만 심지어 가족을 포함한 모든 세상 인심은 이들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다. 죽음에 임박한 힘없는 노인들의 소외를 우울한 풍경으로 묘사한 이 작품은 식민지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조명했다는 점에 의의를 갖는다.

『아담의 후예』에선 오갈데 없는 노인이 서양여자가 자선사업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양노원에 들어가 그곳의 질식할 것 같은 규율에 못이겨 양노원을 뛰쳐 나오는 웃지 못할 비극을 그리고 있다. 안영감은 돈 벌러 간 딸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면서 고향을 떠나 항구가 있는 원산에까지 오게 된 노인이다. 그는 집도 없고, 가족도 없는 거렁뱅이다. 안영감의 그런 삶이 “남 보기엔 죽지 못해 사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정작 안영감 자신의 삶에 대해서 느끼는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라는 것이 중요하다.⁷¹⁾

날이 들면 안영감은 청천백일을 자기 혼자 보는 듯싶었다. 부리나케 관다리 위로 올라와서 대여섯 객줏집 부엌만 거쳐 나오면 하루쯤 굶었던 배는 이내 숨이 가쁘리만치 불러 올랐다. 배만 불러 오르면 기선 소리가 날 때까지는 딸의 생각도 그리 아쉬운 것이 아니었다. 어떤 때는 혹시 뉘집

70) 이태준, 『돌다리』, 「복덕방」, 깊은샘, p.98.

71) 변경해, 「이태준 소설의 인물 연구」, 서울대 대학원, 2001.

부엌에서 고깃국물이나 얻어 마시고 나서면서는 흐리하게나마 ‘딸에게 얹혀 살면 이런 부잣집처럼 고깃국이야 먹여 줄라구’ 하는 생각, ‘못따래기 먹던 턱찌꺼기나마 남의 집 음식이니까 맛이 있지’하는 생각이 좀처럼 그를 비판하게는 하지 않았다. 72)

안영감은 어시장 근처의 장사 할멈들에게서 가끔 밥을 얻어먹어 가며 여기저기 흥미거리를 찾아 돌아다녔다. 싸움이 나면 싸움 구경, 불이 나면 불 구경, 이런 구경거리가 없을 때는 철로를 따라 십리씩 걷기도 하고, 차에서 내버린 차주전자나 사이다병, 뼈루병 같은 것들을 주워다 옛장사나 장사 할멈들에게 내놓기도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낚시질을 하고 싶어 일본인 가게에서 낚시대를 훔치다 그만 주인에게 들키고 만다. 때마침 지나가던 자선가인 B서양부인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양로원 생활을 하게 된다. 그곳에는 안영감보다 먼저 수용된 “해수병쟁이”와 “청맹과니” 두 사람이 있었다. 처음엔 얼씨구나 하고 따라나섰지만 까다로운 규칙에 염증을 느끼고 이내 B서양부인 집에서의 생활을 싫어하게 된다.

안영감은 처음 B부인을 따라나설 때에는,

“이제야 팔자를 고치나 보다”

했으나 이 두 동료들 발견할 때 이내 정이 떨어졌다. 더구나 여러 가지 규칙이 있었다. 몇시에 자고 몇시에 일어날 것, 방과 뜰을 차례로 소제할 것, 이를 닦을 것, 옷에 이를 잡을 것, B부인을 따라 예배당에 갔다오는 외에는 일체 외출을 못할 것, 담배와 술을 먹지 못할 것, 실과나무와 꽃나무에 손을 대이지 못할 것, 동료간에 서로 동정하고 더욱 눈먼 사람은 도와만 줄 것, 툴툴이 성경책을 볼 것 등 정신이 얼떨떨하리만치 기억해야 될 일이 많았다.73)

72) 이태준, 『달밤』, 「아담의 후예」, 깊은샘, p.232.

B부인이 제시하는 여러 규율들은 합리적이고 서구적인 삶의 습성들이지만, 그런 규율들이 오히려 안영감의 삶을 억압하는 구속으로 다가온다. B부인이 안영감에게 오는 기부금을 가로챈 후부터 안영감은 더욱 바깥이 그리워졌고 딸에 대한 생각도 간절하였다. 끝내 안영감은 어느날 밤, B서양부인 집 담장을 뛰어넘어 도망쳐 나온다.

‘저것들이 송장이 양이구 무스겐고?’

이렇게 속으로 측은해하며 그들을 위해 가장 큰 선심이나 쓰는 듯이 문밖에 나서는 길로 다시 사과 밭으로 가서 굶은 것만 여남은 알 따다 그들의 방문 앞에 놓아 주었다.⁷⁴⁾

이 작품에서 B부인의 수용소와 그 수용소가 주는 최소한의 물질적 혜택은 일제의 침략 논리에 비유될 수 있다. 자유를 속박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안영감이 딸을 기다리는 것)을 짓밟는 대신 그들이 무슨 큰 은혜라도 베푸는 양 거들먹거리며 재는 논리 말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작품은 일제의 통치가 설사 우리 민족의 근대화에 약간이나마 도움을 주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의 생명을 짓밟는 것이므로, 일제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 당연한 일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⁷⁵⁾

『행복』은 한 노인이 느끼는 짧은 행복과 그것이 불행하게 좌절되는 삶의 아이러니를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대구역 부근에서 군밤을 팔면서 살아가는 황노인은 마누라가 일찍 죽고, 자식마저 강도질로 삼 년씩 징역을 살다가 행방불명이 된 상태이다. 황노인의 비참함은 경제적 궁핍함과 심리적 외로움에 있는데 그의 외양 묘사는 그가 얼마나 가련한 노인인지 뚜렷하게

73) 이태준, 『달밤』, 「아담의 후예」, 깊은샘, p.235.

74) 이태준, 『달밤』, 「아담의 후예」, 깊은샘, p.237.

75) 정현기, 『이태준』, 건국대학교출판부, 1994.

나타낸다.

그 털이라고는 다 닳아 떨어지고 때에 전 가죽오리만 남아 붙은 남바위, 그 밑에서 서너 오리씩 바람에 날리는 서리 앓은 머리털, 얼굴엔 거미줄을 그린 것같이 세로 영킨 주름살, 그 뿌연 눈알 밑에 추워서 질벽질벽한 눈물, 또 콧물, 그 우긋하고 힘 많고 시퍼런 힘줄이 고깃뿔같이 영킨 손등과 손가락, 혹은 빠지고 혹은 시커멓게 멍이 박인 손톱들, 누가 보든지 그가 나이 육십에 가까운 것이나 그의 과거 일평생 거친 의식과 힘든 일에 이날 이때까지 죽지 못해 살아가는 불행한 신세인 것을 일견에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만일 찬찬한 아낙네가 그의 앞에 발길을 멈춘다면 저고리는 현양복때기를 곁에 입었으니 고만두고 그의 바지만 보더라도 해지고 떨어진 구멍을 기워 입지 못하고 이 오리 저 오리 맞동인 것이나, 그가 묶은 대님이 짐 동이는 새파란 노끈인 것을 보아서 그에겐 자식도 마누라도 없는, 외로운 홀아비 늙은인 것까지도 추측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⁷⁶⁾

그러던 어느날 자식으로부터 뜻밖의 편지가 날아오는데, 글을 모르는 황영감은 우연히 군밤을 사러 온 신사의 도움으로 글의 내용을 알게 되고, 서울로 향하는 기차에 오른다. 북간도에서 장가들고 가게도 벌여 살고 있다는 자식이 서울에 황노인을 데리러 와 있으니 올라오라는 내용의 글이었다. 기차 안에서 노인은 미래에 벌어질 행복스러운 모습을 상상하며 서울에 도착하나, 자식의 손을 잡기도 전에 편지를 읽어 준 신사가 나타나 만석에게 수갑을 채우고 만다는 이야기다.

이때다. 이 황영감이 눈을 씻으며 만석이를 만나 보게 되는, 즉 그가 행복된 새 천지에 첫걸음을 들여놓으려는 이 순간이었다.

76) 이태준, 『달밤』, 「행복」, 깊은샘, pp.33~34.

남모르는 클클한 정이 가슴속에 가득한 이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손을 잡아 보기도 전에 이 두 사람 사이를 썩 가로막으며 나서는 사람이 있다.

“아!”

황영감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오늘 아침 대구에서 편지를 보아 주고 돈까지 찾아 주던 그 친절했던 신사가 틀리지 않았으나 만석의 눈에는 그 독사같이 무서운 낯익은 형사가 틀리지 않았던 것이다.

(중략)

황영감이 무서운 꿈을 깨듯 눈을 비비며 다시 아들을 찾아볼 때는 벌써 만석의 그림자는 간 곳이 없었다.⁷⁷⁾

윗글은 황노인이 자식을 만나려는 순간, 친절했던 신사가 형사로 돌변하여 자식을 가로채는 역전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장면이다. 노인이 기대했던 ‘행복된 신천지’와 실현되어진 현실, 즉 좌절 사이의 대립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불우한 삶을 살아온 우둔하지만 소박하고 선량한 황노인의 꿈은 예상하지 못했던 극적인 상황에 의해 깨어지고 황노인은 좌절하게 된다.

『우암노인』에서는 70이 넘도록 자식이 없어 고민하던 우암노인이 두 번째 소실을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되어 느끼는 삶의 아이러니를 그리고 있다. 평소에 숨 한번 제대로 쉬지도 못하던 소실이 아들을 낳고 난 뒤로는 거만방자해지고, 관대하던 본부인도 소실을 시기하기 시작한다. 이에 환멸을 느낀 우암노인은 죽음을 생각하며 끝없는 어둠과 쓸쓸함에 빠진다.

죽음!

老人은 다시 잠에 들기가 힘들었다. 될 수 있는 대로 安靜하려 깔그러운 눈은 감았으나 귀에서 사뭇 징을 치듯 소란스럽고 무시무시한 소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다시 눈을 떠 천장을 바라보았다. 천장은 끝이 없다. 그냥

77) 이태준, 『달밤』, 「행복」, 깊은샘, p.40.

아무것도 아니 보이는 시커먼 어둠은 한이 없이 높은 것도 같고 한이 없이 깊은 것도 같았다. 그리고 죽음이란 아무것도 안 보이는 저런 빛의 것이라도 생각하니 방 안이 갑자기 깊고 깊은 산 속이나 바다 속처럼 견딜 수 없이 쓸쓸스러웠다. 그리고 이 끝없이 깊은 어둠과 쓸쓸함이 이제부터는 큰마누라보다도 작은마누라보다도 기용이보다도 더 가깝게 사귀어 나가야만 할 그것임을 깨달을 때, 老人은 무서운 野獸와나 마주치는 듯 머리끝이 쭈뼛 곤두삿았다.⁷⁸⁾

이러한 내용의 글을 통해서 작가는 우암노인의 기쁨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아이러니컬하게 그리고 있다. 늦게 얻은 자식으로 생에 대한 애착을 새삼 느끼고, 동시에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자각하는 노인의 심경을 통해 고독과 죽음 앞에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극명하게 제시하였다. 임종을 앞둔 한 노인의 고독한 삶과 생의 싸늘한 절망감이 처절하게 느껴진다.

이상에서 살펴본 『복덕방』, 『아담의 후예』, 『행복』, 『우암노인』의 주인공들은 물질적, 정신적으로 힘없는 노인들로 묘사되어 있다. 작가는 이러한 노인들의 소외와 외로움을 우울한 풍경으로 묘사함으로써 식민지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조명하고자 했던 것이다.

5. 현실속의 여성상

1) 화류·윤락 여성

이태준은 일제 식민지 시대 궁핍한 생활고로 어쩔 수 없이 몸을 팔아야 하는 빈민 여성의 비애를 작품 속에 자주 등장시킨다. 여기에 해당되는 작

78) 이태준, 『달밤』, 『우암노인』, 깊은샘, pp.291~292.

품으로는 『산월이』, 『어떤 젊은 어미』, 『바다』 등이 있고, 앞에서 이미 살펴본 『아무 일도 없소』의 밀매음녀 또한 여기에 속할 수 있는 인물유형이다.

『산월이』에서는 생존과 인간적 고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밤마다 도시의 뒷골목을 헤매며 매춘 상대자를 찾는 산월이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스물일곱 살이 된 기생 산월에게는 과거 아편으로 산월이의 돈 4천원을 들어먹고 자살한 윤가와 산월이의 유일한 밀천인 목청을 절벽으로 만들어 놓고 간 두 사내가 있었다. 이들 때문에 산월이는 전셋집에서 사글세 집으로, 사글세방에서 다시 여관방으로 내려앉자 급기야 밤거리의 여인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런 산월이는 나이가 많고 얼굴이 못났기 때문에 거리에 나와도 그와 잠자리를 같이 할 사람이 없었는데, 얼마만에 간신히 돈많은 구렛나루 신사를 만나 집으로 데려오지만, 집은 켜놓고 간 등잔불에 모두 불타버리고 주인집 아주머니의 악다구리 소리만 높다. 산월이는 모처럼 불러온 구렛나루 신사가 가버리자 못내 아쉬워 하다가 그만 살어름이 쥘리는 진창 위에 그대로 주저앉아 끼이끼이 소리내어 울고 만다. 산월이는 그녀의 유일한 공간인 방이 다 타버린 것보다 궁핍과 외로움을 동시에 해결해 줄 구렛나루 신사가 없어진 것이 더 서운했다. ‘제 남편이나 달아난 것처럼’ 그의 가슴을 찢어 놓는 아픔과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 이 작품은 이렇듯 한 여인의 기구한 삶의 비극성을 보여줌으로써 산월이가 거리로 나설 수 밖에 없었던 당시 궁핍한 현실을 엿볼 수 있다.

성을 매개로 하여 삶을 살아가는 인물형으로는 『어떤 젊은 어미』의 켈녀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어떤 젊은 어미』의 켈녀는 홀어머니 밑에서 착실하게 자랐으나 “학비가 없어 고등학교에는 가지 못하고 집에 있는 사년동안 지체는 낮지만 복스러운 얼굴 하나로 상당한 통혼처도 많이 있었으나 혼

인하고도 공부시켜 준다”는 어느 치과의사에게로 시집을 간다. 그런데 공부
는커녕 신문 한 장 볼 새 없이 바쁜 시집살이에다 남편은 성질이 난폭하고
또 불량했다. 결국은 계집 하나를 데려온 남편에 의해 이혼을 당하고 아들
경일과 쫓겨난다. 쫓겨나는 어려운 살림 형편에서 아들 경일이에 대한 모성은
지극하여 병든 아들의 치료비를 고민하다 민박을 하며 마을에 묵고 있던
‘권의사’에게 몸을 팔게까지 된다.

그러나 쫓겨나는 일이 지나고 보니 서러웠다. 생각만 하여도 치가 떨리는
원수 녀석의 종자로 인해 계집으론 마지막인 몸까지 파는 생각을 하면 가
슴이 부르르 떨렸다. 차라리 이번에 경일이가 죽거나 했으면 저도 마음 편
히 물에라도 빠져 죽고 싶었다.⁷⁹⁾

쫓겨나는 자식이 죽어간다는 위기적 현실에 떠밀려 결국 몸을 팔게 되는 극
한 상황을 겪지만, 도덕성 앞에서 ‘죽음’을 생각할 만큼 자책할 줄 아는 여
인이다. 또 한편으론 권의사의 ‘점잖고 다정한’ 성품에 진정으로 금슬의 정
을 느끼게 된다. 얼마 후 권의사는 도청으로 돌아가고 만다. 권은 시원섭섭
하게 느꼈을 따름이지만, 쫓겨나는 여러 날을 냇을 잃고 헤매었다. 이듬해 가
을, 권의사가 있는 도청에서 산과자격시험을 보는데 돈 이원에 만삭 임부의
모델로 쫓겨가 서게 된다. 그러나 권의 놀라움은 곧 임신의 상대자가 자신
이 아니라는 데 대한 안도감으로 바뀌면서, 짐짓 쫓겨나의 입을 미리 막는데
급급해 한다. 그리곤 자기를 피해 버린 쫓겨나의 마음을 이렇게 해석해 버린
다. “옳지, 다른 사내를 보아서 자식을 뱀 것이 부끄러울 테지…….”

쫓겨나가 비록 창부의 노릇은 했으나 도의와 양심을 알고, 인간적인 참다운
애정으로 권의사를 사랑했다면, 권의사는 잠시 육체적인 쾌락과 동정의 대

79) 이태준, 『달밤』, 「어떤 젊은 어머니」, 깊은샘, p.244.

상으로 삼았던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에게 자기 합리적인 감정 이상의 진정을 주지않는 패륜적이고 이기적인 속물의 전형으로 볼 수 있다.

『바다』는 배기미라는 바닷가 마을을 배경으로 옥순이라는 시골 처녀가 아버지와 약혼자를 바다에다 잃고, 어머니와 함께 궁핍한 생활을 하던 중에 생활고에서 벗어나기 위해 청진의 식당에 보내지게 되자 자살하게 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옥순이는 왈롱과 정혼한 지 삼 년이 되었는데도 형편이 어려워 혼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었다. 올 가을에는 꼭 성례를 올려야 한다며 양가 어른들과 왈롱은 무리해서 출항을 하여 결국 심한 폭풍우에 휩쓸려 목숨을 잃는다. 생활력이 없어진 옥순 모녀의 살림은 극도로 궁핍해진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에게 손찌검까지 하며 빚을 독촉하던 구장이 옥순이네 생활이 어려워져 빚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옥순이를 화류계의 양복쟁이에게 팔아 넘긴다.

옥순은 며칠 전에 술이 잔뜩 취해 가지고 와서 아버지가 못 다 갚은 빚 독촉을 하고 나중에는 어머니에게 손찌검까지 하려고 덤비던, 그 사람 잘 치는 구장임을 생각할 때, 소름이 오싹 돋는 것을 발바닥에까지 느끼었다.⁸⁰⁾

“내 너르 못 갈 데 지시르 할 리 있능야? 이제 그 어룡이 청진서 고등식당으 경영한당이. 나진에다 지점으 두구, 지금 지점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너만치한 아더르 삼사 명으 모집한당이……”

“……”

“직업에 귀청이 있능야? 또 그게 어찌 천하겠능야. 식당에서 점잖은 신사더르 접대하능 게 무실에 천업이겠능야?”

80) 이태준, 『돌다리』, 『바다』, 깊은샘, p.40.

“내사……”

“네 생각으 해 보랑이 …… 무실에 ……”

“내사 그렇 거 실스꼬마 ……”

“무시거? 양이, 네 무신 공뷔 있능야, 재강이 있능야. 사람이랑 게 남너르 막론허구 대처에 가 구불러야 때르 뺏능이라 ……”

“……”

“좀 조갱이? 아, 고분 우티가 있어, 마셨는 요리도 먹어, 손님들으게 귀염으 받아, 돈으 모아 …… 모으능 게 무시게냐. 당장에 양이 네 간다구만 허문 당장에 비단우티르 해 주구 선월급으루 돈 백 원이나 준당이 …… 그러문 네 어른 빛으 갚구두 너이 어망이 배기미루 덩기며 생선 장사할 미청이 넉근하게 되지 않갱이? 그 노릇으 양이하구 네 무스거하겠능야?”

“내사 실스꼬마 ……”

옥순은 벌써 구장의 속이 뻘-히 드러다보이는 것 같았다.⁸¹⁾

옥순은 가난한 어촌에서 순박하게 자란 인물로 아버지의 빛을 갚고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될 줄 알지만,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를 더 뚜렷하게 알기에 복어알을 먹고 죽으려는 결심을 한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아, 집을 떠나야 할 아침에 목욕을 핑계삼아 바다로 나왔다가 바다에 몸을 던지고 만다.

위에서 살펴본 『산월이』, 『어떤 젊은 어미』, 『바다』에서는 식민지 시대 빈민 여성들이 어쩔 수 없이 몸을 팔아야 하는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사회적인 부조리와 그 시대 보편적인 경제현상이었던 궁핍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들 인물들에게 동정적인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81) 이태준, 『돌다리』, 『바다』, 깊은샘, pp.42~43.

2) 여성의 자아인식

이태준 소설에 등장하는 여성은 대부분 궁핍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서는 예외적으로 주인공인 여성이 인생의 참된 가치를 스스로 선택해 나가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여성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속하는 작품들로는 『결혼』, 『코스모스 이야기』 등을 들 수 있다.

『결혼』은 S라는 여인이, 좋은 자리를 다 마다하고 진실하게 살려는 노력과 번민이 있는 가난한 무명 작가 T와 결혼하여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간다는 이야기이다. S는 어머니에게 폭군처럼 행동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남성을 무서워하는 한편 반항심을 키우며 자랐다. 그러면서 그녀는 사람의 행복은 재물에 있지 않다는 관념을 뿌리깊이 간직하며 성장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폭력이 가부장제의 권위 때문이라는 의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당시 ‘돈’이 행복의 제일조건으로 여기는 사회의 문제를 의식한다. 그녀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돈많은 재상의 아들과 박사를 만나나, 이들은 식민지 지배체제에서 그 시대에 맞게 변조된 위선을 지닌 자들이라고 파악하고 과감히 거부한다. S는 학위나 재산에 있어서는 백지인, 진실하게 살려는 번민과 노력만이 있는 T라는 남성을 선택한다. 돈과 명예가 아니라, 사랑을 중시하여 T를 선택한 것이다. S는 자신의 판단에 의해 남성을 선택하는 근대적 여성의 면모를 보여준다. 하지만 곧 경제적 곤궁 속에서 현실과 타협하게까지 되지만, S는 자신의 타협은 남편뿐 아니라 자신의 양심에 대한 배신임을 깨닫고 다시 마음을 돌리게 된다.

‘진실히 살려는 번민과 노력! 그것이다. 나는 애초부터 T의 그것을 믿었다. 그것을 사랑하였다. 결혼으로 말미암아 나나 T나 인간으로서의 향상은 있을지언정 타락이 있어서는 안 된다. 결혼으로 말미암아 청춘의 의기와 인생의 신선함과 향기를 잃어서는 안 된다!’⁸²⁾

이 작품에서는 ‘결혼’의 상징 의미를 ‘무력적 정치’로 규정함으로써 두 가지 의미를 암시하고 있다. 즉 첫째로 여성을 속박하는 봉건적인 틀이며, 둘째로는 조선민족을 억압하는 일제의 무력정치이다. 이 작품에서 자아를 각성한 결말처리는 봉건적인 틀에서 벗어난 주체적인 여인이라는 의미와 아울러 일제에 굴복하지 않고 대항하며 살아가겠다는 지식인의 삶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⁸³⁾

『코스모스 이야기』의 명옥 역시 『결혼』의 ‘S’와 비슷한 인물유형이다. 주인공 명옥은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몸과 마음이 모두 아름다운 부족함 없는 여인이다. 그녀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부와 권력이 있는 집으로 시집을 가 호사를 누리지만, 자기의 미모와 육체만을 사랑하는 남편의 거짓 사랑에 환멸을 느낀다. 그러던 어느날 행랑어멈 자식의 죽음을 보고 큰 충격과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된다. 몸에 아무런 병도 없으면서 몸이 축갈까 보약을 마시는 자신과, 행랑어멈의 아들은 목숨이 경각에 달렸으며 일이십 전하는 상약 한 첩 쓰지 못하고 죽었다는 사실을 통해 자본주의의 불평등한 분배로 빈부의 격차가 심함을 느낀다. 또한 그녀는 남편이 자기를 볼 때 ‘사람으로 보지 않고 한낱 향락을 위한 무슨 도구로 보듯하는 남편이 도야지나 굼벵이 처럼 징글징글해졌다.’ 어느 가을, 화단의 코스모스가 꽃이 피기도 전에 서리를 맞은 것을 보고 깊은 생각에 빠진다.

‘코스모스의 행복은 꽃이 피는 데 있으리라. 비옥한 땅에서 키만 자라고 죽는 데 있지 않고 거치른 땅에 나서라도 꽃을 피어 보는 데 코스모스의 행복이 있을 것이다. 사람도 그럴 것이다!’⁸⁴⁾

82) 이태준, 『달밤』, 「결혼」, 깊은샘, p.119.

83) 임은희, 「이태준 단편소설 연구」, 한양대 대학원, 1993.

84) 이태준, 『달밤』, 「코스모스 이야기」, 깊은샘, p.199.

이렇듯 그녀는 봉건적인 잔재가 가득한 허위적인 가정에서 벗어나, ‘사람답게 사는 길’을 찾아 나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두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적극적으로 세상에 대처하는 능동적 인물이다. 작가는 이 두 작품의 여성인물을 통해 당대를 살아나가는 여성과 지식인의 바른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IV. 결론

지금까지 1930년대의 중심적인 작가의 한 사람으로 왕성한 작품 활동을 했지만, 월북이라는 문학외적인 요인으로 연구에서 배제되어 왔던 상허 이태준의 문학을 대상으로 그의 단편 소설에 나타난 인물들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예비적 고찰로써 상허의 생애와 문학활동을 살펴보았다. 우선 그의 불우했던 성장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그의 주변 환경과 다양한 체험들이 그의 문학에 반영된 경로를 찾아보았고, 문학 활동의 주무대가 되었던 1930년대의 시대 사정 속에서의 ‘九人會’ 활동을 중심으로 한 문학세계 등을 살펴보았다.

본론에서는 상허의 단편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소외와 궁핍의 인간상, 갈등과 좌절의 지식인상, 질박한 인간상, 노년 인물의 현실 수용, 현실속의 여성상, 이렇게 다섯 갈래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삶의 인식과 작가가 표출하고자 했던 의식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다. 소외와 궁핍의 인간상을 보여주는 작품들로는 『밤길』, 『꽃나무는 심어 놓고』, 『봄』, 『춘떡기』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은 자본주의 침투와 식민지 모순으로 인한

궁핍한 생활고로 삶의 비애를 느끼며 살아간다. 작가는 이러한 하층민의 비참한 삶을 통해 일제치하에서의 하층민의 뿌리뽑힌 삶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러한 원인이 이 사회의 모순에서 비롯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갈등과 좌절의 지식인상에서는 사회현실과의 갈등을 통해 좌절을 겪게 되는 ‘갈등의 인간상’과 작가 자신의 자전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자기 반성의 인간상’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갈등의 인간상’에는 『아무일도 없소』, 『고향』, 『실락원이야기』, 『어떤날 새벽』, 『삼월』 등이 있는데, 이들은 민족의식을 가진 지식인들로 식민지 현실에 타협하지 못한 인물들이다. 억압된 시대 상황에 갈등하고 좌절하는 지식인의 고뇌를 통해 작가의식이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되었음을 보여준다. ‘자기 반성의 인간상’에는 『장마』, 『패강령』, 『토끼이야기』를 들 수 있는데, 이태준은 자신을 대변하는 지식인을 등장시켜 자신의 삶과 문학 세계를 반성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자세를 보였으며, 미래에 다가올 시련을 예견하는 예리한 현실인식을 보여준다. 상허의 단편소설에는 어리숙하나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순박한 인물들이 있는데, 이러한 인물들을 ‘질박한 인간상’으로 분류해 보았다. 여기에는 『달밤』의 황수건, 『손거부』의 손서방, 『색시』의 색시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어리석고 모자라지만 선량한 이들은 당대의 암울한 현실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작가 의도의 인물들로 보여진다. 운명과 현실의 피해자의 입장에 선 이들은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분노와 항거 대신에 우둔함과 천진함과 익살스러움으로 고통스러운 삶의 한을 풀고 있다. 노인의 경우에는 『영월 영감』, 『돌다리』, 『불우선생』에서의 적극적이고 행동적인 노인상과 『복덕방』, 『아담의 후예』, 『행복』, 『우암노인』에서의 궁상맞게 살아가는 순응적이고 초라한 노인상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적극적 인물의 경우 미래지향적이고 의지적인 노인들이 등장하여 식민지 시대 젊은 지식인들

의 무기력을 비난하고 있으며, 순응적 인물의 경우에 속하는 노인들은 적극적인 삶의 의지나 경제적 능력을 갖추지 못한 힘없는 노인들의 소외와 외로움을 보여줌으로써 식민지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조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경우, 화류·윤락 여성의 경우와 인생의 참된 가치를 스스로 선택해 나가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여성상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화류·윤락 여성의 경우에는 『산월이』, 『어떤 젊은 어머니』, 『바다』, 『아무일도 없소』 등의 작품이 속하는데 여기에서는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지 못한 빈민 여성들이 살아가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몸을 팔게 되는 비극적인 삶을 보여줌으로써 사회적인 부조리와 궁핍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다. 반면 자아와 진실에 눈뜨는 여성에 속하는 인물로 『결혼』의 ‘S’와 『코스모스 이야기』의 ‘명옥’을 들 수 있다. 이들은 특히 작가의 인생관이 투영된 인물들로서, 당대를 살아나가는 여성과 지식인의 바른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이태준의 작품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인물들은 이태준의 작가의식과 당대의 시대 현실과의 다양한 관련성 하에서 형상화되고 있는 당대적 인물들로, 일제 식민지 시대 정신적인 좌절과 경제적인 곤궁을 체험하며 현실에 고통받는 인물들이다. 그들은 현실과의 관계가 화해롭지 못하거나 갈등하고 있는 인물들이다. 작가는 그런 인물들을 포용하지 못하는 상황의 비정함이나 암울함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존의 이태준 연구에서 논의되었던 ‘사회성이 없다’, ‘시대인식이 취약하다’는 평가는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이태준 『이태준 문학 전집』, 깊은샘, 1995.

제1권 - 달밤, 제2권 - 돌다리, 제7권 - 사상의 월야, 제15권 -
무서록, 제16권 - 문장강화, 서간문강화, 제17권 - 상허문학독본.

2. 단행본

강만길, 『한국현대사』, 창작과 비평사, 1984.

권영민편, 『월북문인연구』, 문학사상사, 1989.

김상선, 『상허 이태준 문학 연구』, 한빛미디어, 1994

김영모외 공저, 『일제하의 민족 생활사』, 현음사, 1982.

김우중, 『한국현대소설사』, 선명문화사, 1973.

김윤식·김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1973.

민충환, 『이태준 소설의 이해』, 백산출판사, 1992.

민충환, 『李泰俊研究』, 깊은샘, 1988.

백철, 『신문학사조사』, 신구문화사, 1986.

상허문학회, 『이태준 문학 연구』, 깊은샘, 1993.

이명희, 『상허 이태준 문학세계』, 국학자료원, 1994.

이병렬, 『이태준 소설 연구』, 평민사, 1998.

이재선, 『한국 현대 소설사』, 흥성사, 1979.

장영우, 『이태준 소설 연구』, 태학사, 1996.

정한숙, 『현대한국문학사』, 고려대학교출판부, 1986.

정현기, 『이태준』, 건국대학교출판부, 1994.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5권』, 지식산업사, 1989.

조연현, 『現代文學概觀』, 二友出版社, 1980.

황중엽, 『詩作과 眞實』, 眞誠堂, 1948.

3. 논문 및 평론

강진호, 「이태준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김기림, 「작가론 - 스타일리스트 이태준씨를 논함」, 『조선일보』, 1933.
6.

김동리, 「이태준론」, 『풍림』, 1937, 3.

김동석, 「예술과 생활 - 이태준의 문장 -」, 『예술과 생활』, 1948.

김은정, 「이태준 단편소설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김종빈, 「묘혈을 자칭한 이태준」, 『동아춘추』, 1963.

김현숙, 「이태준 소설의 기호론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박건명, 「이태준 단편소설에 나타난 인물 유형 연구」, 『건국어문학 제
15·16합집』, 1991.

박경덕, 「이태준 단편의 인물 유형」,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박정규, 「尙虛小說의 現實認識」, 『어문논집』, 고려대학교 사범대 국어
국문학연구회, 1986.

박태원, 「이태준 단편집 <달밤>을 읽고 - 독후감」, 『조선일보』, 1934.

방준원, 「이태준론」, 『白民』, 1946.

변경혜, 「이태준 소설의 인물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서은희, 「이태준 단편의 인물 유형과 현실 인식 양상」, 고려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1993.

- 서종택, 「납월북 작가 작품연구」, 고려대 인문논집, 1989. 7.
- 송인화, 「상허 이태준 단편소설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6.
- 송하섭, 「이태준 소설의 서정성 연구」, 단국대학교 논문집 제29호, 1995.
- 신순철, 「李泰俊研究」, 효성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6.
- 유철상, 「이태준 단편소설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 이강언, 「이태준소설의 소외 양상 연구」, 『인문예술논집』, 대구대학교, 1999.
- 이경은, 「이태준 단편소설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 이남호, 「李泰俊短篇小說研究」, 『한국어문논집』,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학회, 1988. 8.
- 이선미, 「이태준 소설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 이선영, 「전통적 정서에 민족의식을 담은 이태준」, 『한국인』, 사회발전연구소, 1988. 11.
- 이우석, 「이태준 단편소설에 나타난 인물 유형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 이익성, 「尙虛短篇小說研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 이탄미, 「이태준 소설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 임은희, 「이태준 단편소설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 조남현, 「이태준의 이론과 실천의 틈」, 『새국어생활 제11권』, 국립국어연구원, 2001.
- 최재서, 「최근문단의 동향 - 단편작가로서 이태준」, 『문학과지성』, 인문사, 1938.
- 최태응, 「이태준의 비극」, 『사상계』, 1963.
- 황영숙, 「이태준 소설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ABSTRACT

A study on the type of character in Lee Tae-Jun's short stories

Kim, Jin-Sook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Hanyang University

Adviser : Prof. Lee, Geon-Che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quire the understanding of the life and the literature meaning by focusing on the various kinds character in the novels of Lee Tae-Jun, by means of his short stories until the Korea's Independence. According to the existing studies, the characters in Lee Tae-Jun's novel is lacked of social activity and history consciousness as a incredulous and a defeated man and it has been the general opinion for the study of Lee Tae-Jun's novels so far.

But, in this thesis, I came to the conclusion that an author's agony, of the social and of the historic reality, was reflected in his short stories.

At first, the preceding studies have probed Sang Hue's life and his literature activity. He grew up extraordinary environments both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and an orphan personally. We consider the period of writing, which was censorship it reflects that it's consideration has a significant meaning.

To the main subject, I sorted out five shapes, such as novels character, human being of the isolation and destitution, conflicted and frustrated image of the intellect, the simple and unadorned image of the human, the aged man's actuality acceptance, and the image of woman in real. In human being of the isolation and destitution, It shows that his work represented the needy of person's dreary lives. That reason show that it was originated from the contradiction of these society. In the conflicted and frustrated image of the intellect, it shows that the author's consciousness enlarged on social problem through an intellectual's distress about an oppressive the times. Besides, by means of the character act as a spokesman of author to reflect on his life and literary society. and to seek new direction of them. It shows that he predict the trials to comes up an acute sense of reality recognition. In the simple and unadorned image of the human, indirectly, it reveals that the gloomy reality of the present generation. In the aged man's actuality acceptance, that is, in case of positive person, future-oriented and the young educated strong willed person of the aged blame for enervation. In case of adapted the aged person, it shows that old people's loneliness and isolation were caused by a weak will of life and the lack of economical

power, for the purpose of spotlighting the gloomy stage of the colony. In the image of woman in real, in case of a ruined woman in urban, it shows that social absurdity and poverty has appeared frankly through the tragic life for living to be ruined. The other side, his work shows that the proper shape of the woman and the intellect was represented by means of character with having the self-recognition.

The results of analysis of characters in Lee Tae-Jun's short stories, I found that there were his consciousness and characters of the present age, including the forms of the age problems in his novels. We know that they experience spiritual frustration and financial poverty with the hard realities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They had troubles with the harsh realities of life. I show that the author inform us with an heartless or gloomy situation, not tolerated them.